

2020학년도 2학기 배재 수업 에 세 이

지은이 배재대학교 학생들

역은이 김명희



목차

1. 꿈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바꿔준 특별한 시간 / 심리상담학과 조하연
[진로상담 / 심리상담학과 성환재 교수님] 1
2. 말하기, 그것을 통해 즐거움을 느낀 수업 ‘한국어화용론’ /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김유진
[한국어화용론 /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황은하 교수님] 12
3. 끊임없이 동요하는 교육의 현장으로 / 유아교육과 차현주
[교육학개론 / 교직부 이현주 교수님] 15
4. 전달되는 말 / 의류패션학과 김세이
[토플 / 기초교육부 제이슨 포터 교수님] 22
5. 선택이 아닌 필수, ‘금융’을 바라보다. / 경영학과 이선영
[실용금융 / 교양교육부 윤대광 교수님] 25
6. 따뜻한 마음을 드려요. / 가정교육과 이아름
[가족 상담 및 치료 / 가정교육과 송진숙 교수님] 27
7. 패션소재, 알 듯 말 듯 헛갈리는 너 / 가정교육과 박소민
[패션소재와 의복관리 / 가정교육과 문희강 교수님] 30
8.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길 줄 아는 ‘뿌리 깊은 나무’의 수업 /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이현정
[국어교과교육론 /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백낙천 교수님] 32
9. 이상심리학 / 심리상담학과 서유신
[이상심리학 / 심리상담학과 임선경 교수님] 34
10. 배움에 대해 열정을 가진 나! / 바이오·의생명공학과 김수진
[발효학 / 바이오의약학부 이종수 교수님] 38

11. 수업 속에서 찾은, 삶을 마주하는 자세 / 유아교육과 김하늘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직부 강명숙 교수님]	40
12. COVID-19 속 지역사회 / 실버보건학과 배다은 [지역사회복지와 실천 / 실버보건학과 임진섭 교수님]	43
13. 포토샵 지식 없이도 들을 수 있는 눈높이 맞춤 수업 / 의류패션학과 피채림 [포토샵그래픽활용 / 기초교육부 강유경 교수님]	46
14. ‘비대면’이지만 괜찮아 / 공무원법학과 박수빈 [보험해상법 / 공무원법학과 백정웅 교수님]	49
15. 내가 선택한 첫 토론 수업 / 심리상담학과 최세언 [영어읽기2 / 기초교육부 리마니치 교수님]	52
16. 실시간 화상 수업,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 항공운항과 송은영 [항공인터뷰영어2 / 항공운항과 이진영 교수님]	54
17. 글쓰는 방법의 지식부터 감성까지 / 조경학과 이승연 [기초글쓰기 / 교양교육부 이희영 교수님]	56
18. 영어? 너도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봐 /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진영민 [의사소통영어2 / 기초교육부 김재경 교수님]	58
19.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 공공인재학부 진민지 [공무원시험과 면접 실습/ 공공인재학부 정연정 교수님]	60
20. 임상 시뮬레이션 상황을 통한 실무 대처 능력 / 간호학과 장경민 [통합시뮬레이션 / 간호학과 진보경, 서은주 교수님]	63

01

꿈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바꿔준 특별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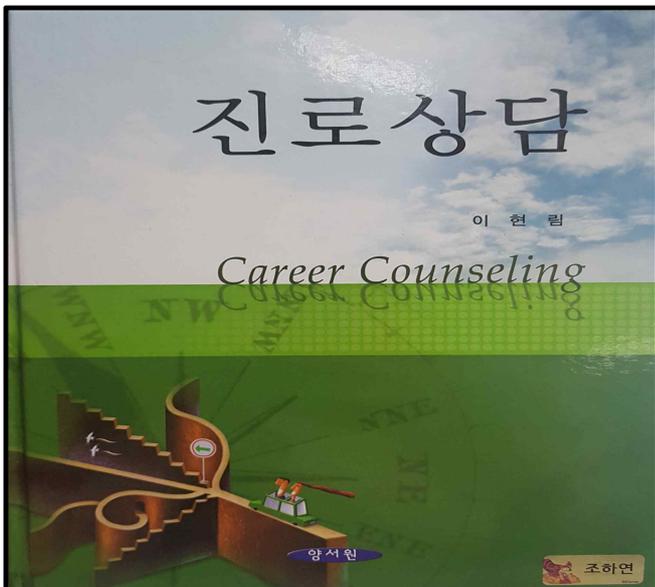
2020-2학기 최우수상 / 심리상담학과 조하연

① 수업내용 - “나를 알려주는 수업”

교과(오...)
학부

진로상담[01] (PSP18313_01) (2학기)

성환재



4. 수업 계획서																														
2020 학년도 2 학기																														
구분	A-1		소속	학부(과)	명	심리상담학과	성명	성 환 재																						
교과명	진로상담																													
교과목명	진로상담																													
교과목개요	진로상담은 학생 다양한 직업세계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직업, 흥미, 능력, 성격 특성, 발달적 이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개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원하는 삶의 목표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전문적 진로상담 역량을 충족하여야 한다. 학생에서 진로상담을 경험함으로써, 순환하고 이론과 실재를 학습하기 위하여 본 과목에서는 진로상담의 이해, 진로선택이론, 진로발달이론, 진로상담방법론, 진로발달론, 사회현황의 이해, 진로상담과 상담실적의 활용, 자기포용력과 드린 태이론, 자기소개서 및 면접요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실용적 진로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목학습목표	1. 내담자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하여, 상담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담방법을 학습한다. 2. 진로상담 이론을 근거로 내담자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 기법들을 수업에서 실제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을 한다.																													
교재	주교재: 진로상담, 이현림, 양서원, 2007. 참고 문헌: 진로상담의 실제, 김봉환 역, 학지사, 2018.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실용/실습/실기	현장학습	발표	세미나	면담	기타1	기타2	기타3																				
수업매체	관세	원인	컴퓨터	인터넷	프로젝트	전자학습	LMS	동영상	기타1	기타2	기타3																			
주요별 수업계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8px;"> <thead> <tr> <th>구분</th> <th>수업내용</th> <th>학습목표</th> <th>평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진로상담의 이해 1. 진로상담의 의미 2. 상담과정의 개념 3. 상담현황에 관한 문제 4. 진로, 상담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이해</td> <td>진로상담의 이해</td> <td>교과목명</td> </tr> <tr> <td>2</td> <td>진로발달이론 1. 진로발달이론의 이해 2. 진로발달이론의 이해 3. 진로발달이론의 이해</td> <td>진로발달이론의 이해</td> <td>교과목명</td> </tr> <tr> <td>3</td> <td>진로선택이론 1. 진로선택이론의 이해 2. 진로선택이론의 이해 3. 진로선택이론의 이해</td> <td>진로선택이론의 이해</td> <td>교과목명</td> </tr> <tr> <td>4</td> <td>진로상담방법론 1. 진로상담방법론의 이해 2. 진로상담방법론의 이해 3. 진로상담방법론의 이해</td> <td>진로상담방법론의 이해</td> <td>교과목명</td> </tr> </tbody> </table>										구분	수업내용	학습목표	평가방법	1	진로상담의 이해 1. 진로상담의 의미 2. 상담과정의 개념 3. 상담현황에 관한 문제 4. 진로, 상담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이해	진로상담의 이해	교과목명	2	진로발달이론 1. 진로발달이론의 이해 2. 진로발달이론의 이해 3. 진로발달이론의 이해	진로발달이론의 이해	교과목명	3	진로선택이론 1. 진로선택이론의 이해 2. 진로선택이론의 이해 3. 진로선택이론의 이해	진로선택이론의 이해	교과목명	4	진로상담방법론 1. 진로상담방법론의 이해 2. 진로상담방법론의 이해 3. 진로상담방법론의 이해	진로상담방법론의 이해	교과목명
구분	수업내용	학습목표	평가방법																											
1	진로상담의 이해 1. 진로상담의 의미 2. 상담과정의 개념 3. 상담현황에 관한 문제 4. 진로, 상담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이해	진로상담의 이해	교과목명																											
2	진로발달이론 1. 진로발달이론의 이해 2. 진로발달이론의 이해 3. 진로발달이론의 이해	진로발달이론의 이해	교과목명																											
3	진로선택이론 1. 진로선택이론의 이해 2. 진로선택이론의 이해 3. 진로선택이론의 이해	진로선택이론의 이해	교과목명																											
4	진로상담방법론 1. 진로상담방법론의 이해 2. 진로상담방법론의 이해 3. 진로상담방법론의 이해	진로상담방법론의 이해	교과목명																											

■ [사진 1] 수강내역과 교재 및 수업 계획서

올해 1학기에 편입을 하여 새로운 학문을 배우려고 온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비대면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신입생이지만 1학년이 아닌, 3학년이기에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마침 성환재 교수님의 ‘진로상담’ 과목은 현재 나에게 있어 방향을 정해주는 가이드북 같은 존재의 수업 이였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상담분야의 현장 전문가로서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와 아낌없는 조언들을 주셨는데 가장 와닿았던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자가 되어라’ 라는 말은 저에게 있어 초심 상담자로서 다잡게 만드는 소중한 말씀 이였습니다.

나의 희망직업 탐색

1. 내가 원하는 직업과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직업(1점씩)

번호	희망직업	부모	형제	친척	친구	학교 선배님	동업선배님	교동선배님	신랑감사 친구	경남총 학생회	총점
1	상담심리사	0	0	0	1	1	0	0	1	1	4
2	사회복지사	0	0	0	1	1	0	0	1	1	4
3	경찰	1	1	1	1	0	0	0	0	0	4
4	공무원	1	1	1	0	0	0	0	0	0	3

2. 희망직업 선택하기(1점씩)

번호	희망직업	가치관	흥미	적성	성격	경제적 여건	사회적 안정도	신체 조건	인성	대인관계	안정도	총점
1	상담심리사	1	1	1	1	1	0	1	1	0	0	7
2	사회복지사	1	0	1	1	1	0	0	1	0	0	5
3	경찰	1	1	0	0	0	1	0	1	0	1	5
4	공무원	0	0	0	0	0	1	0	0	0	1	2

3. 최종 직업 선택표

번호	가치 관의 (가중치: 1-3점)	직업명		
		1. 상담심리사	2. 사회복지사	3. 경찰
1	직업 가치에 맞는 직업	3	3	3
2	직업 흥미에 맞는 직업	3	2	2
3	직업 성격에 맞는 직업	3	2	1
4	직업 적성에 맞는 직업	3	3	1
5	학업 성취도에 맞는 직업	2	2	1
6	경제적 여건에 맞는 직업	1	1	3
7	신체 조건에 맞는 직업	3	3	1
8	인성에 맞는 직업	3	3	3
9	대인관계에 맞는 직업	1	1	1
10	사회적 안정도	1	1	3
	합계	23	21	19

■ [사진 2] ‘나의 희망직업 탐색’ 진로 프로그램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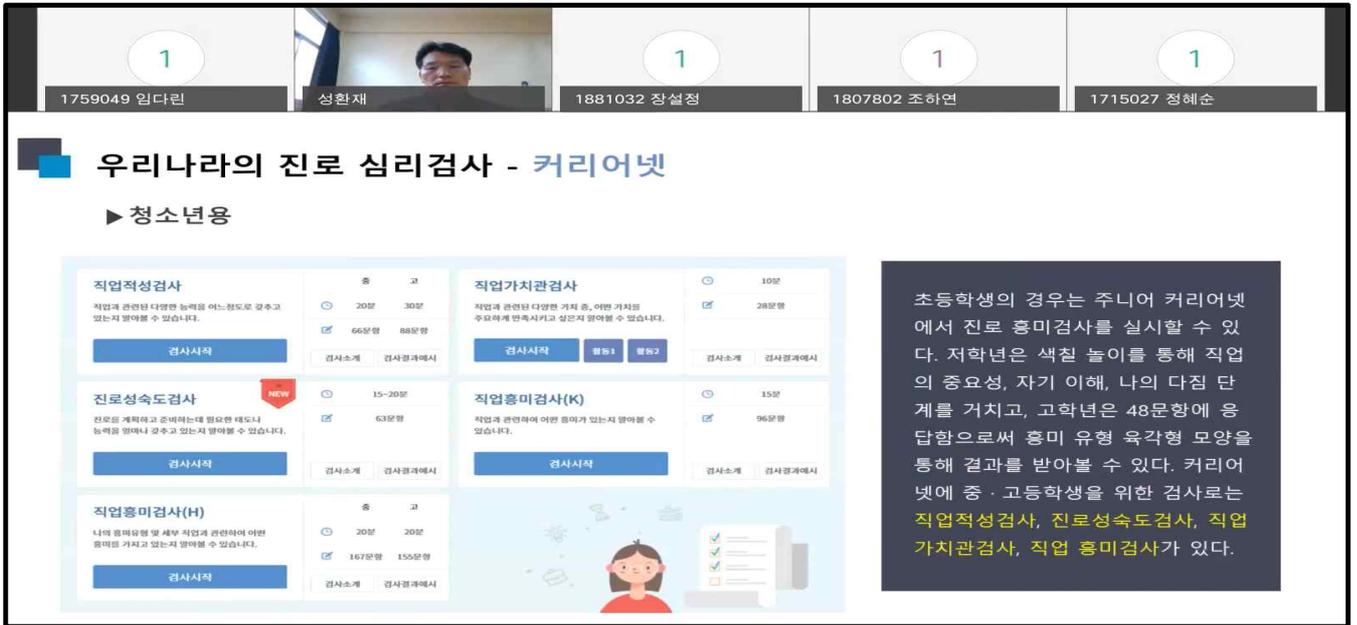
매 수업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 중 특히 ‘나의 희망직업 탐색’ 프로그램 활동은 내가 원하는 직업과 주의 사람들이 바라는 직업을 구분하여 가치, 흥미, 적성, 성격, 경제적 여건, 사회적 안정도 등등을 파악하여 직업들을 목록별로 중요한 정도의 가치를 점수로 매겨봄으로써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공무원을 준비했었지만 건강상 문제로 포기하게 된 현 상황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였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매우 안타까운 마음 이였겠어요.라는 교수님의 진심 어린 위로로 경찰을 통해 이루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한 가치관 달성실패에 대한 아쉬웠던 마음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치관은 ‘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선사하는 것’으로 이것이 꼭 오직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의 실천에서도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상담 이론 내용 수업에서 알 수 있었고 매주 진로관련 프로그램 활동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는 ‘봉사’라는 가치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을 보고 나의 직업가치관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전형적인 학문의 깊은 이론지식의 배움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지속적인 진로탐색 활동들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주며 매주 교수님의 차분한 응원 피드백과 위로와 공감부분들은 마치 몰랐던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② 수업 방법 - “모두의 의견이 정답이며 존중받는 느낌의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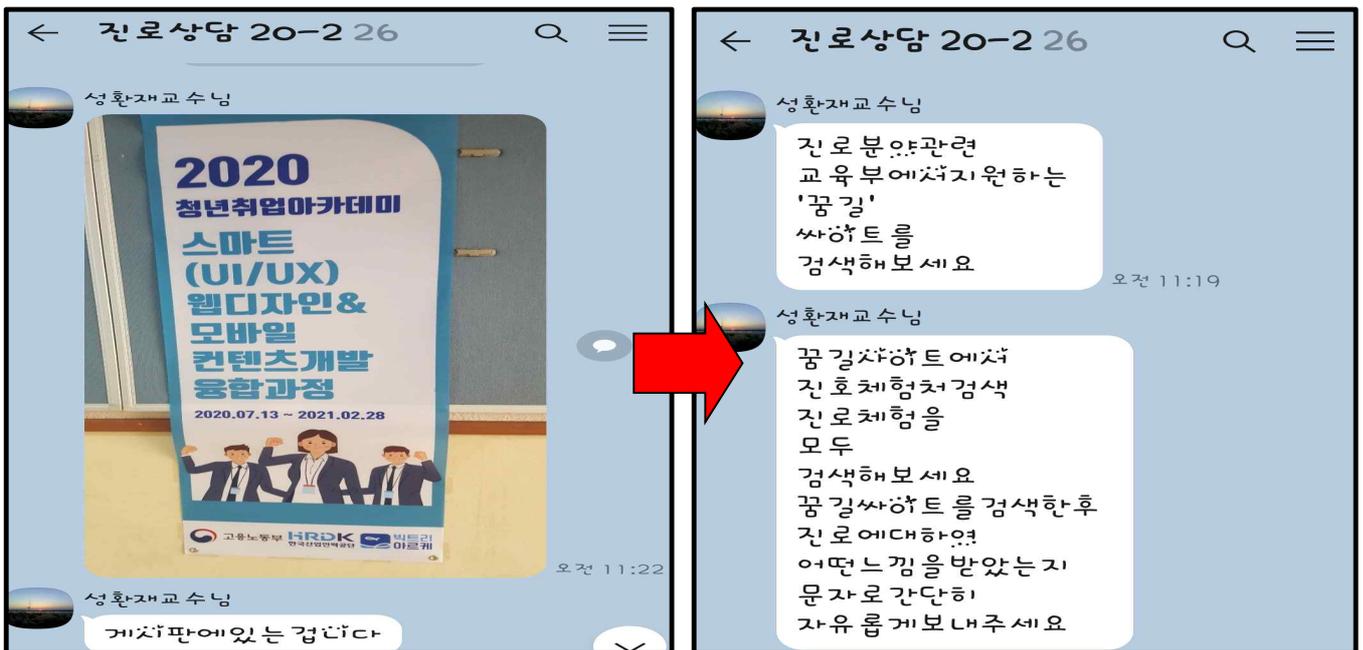
성환재 교수님의 강의 특징은 일반적인 이론식 교수학습이 아니라 실시간 화상강의를 통해 소

통하는 세미나 토론 강의 형식으로 몇 가지 특별한 점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사진 3] 실시간 WebeX 화상강의를 통한 조별 과제 PPT 발표 내용

첫째, 매주 수업에 2인 1조로 조별발표가 진행됩니다. 보통 이론식 전공과목들은 교수님의 설명으로 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이 수업은 학생들이 전공 책의 내용을 토대로 준비하여 조별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발표자와 발표를 듣는 학생들, 교수 등 청중자 모두 매주 색다르게 준비된 ppt자료에 집중하게 됩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론 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발표자나 듣는 학생들 모두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한 번 더 보게 만듭니다.



■ [사진 4] 취업과 전공 관련된 교수님의 정보 제공

둘째, 매주 취업관련 내용과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있어 교수님께서서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심리상담학 전공자들이며 관련분야로 취업을 희망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이에 필요한 정보들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립니다. 상담분야 관련 자격증과 관련 취업기관과 관련 정책 및 법안 등의 수정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알려주십니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밖에 몰랐던 부분을 교수님께서 추가로 청년 기본법을 알려주셨으며 학교와 연계된 상담기관과 봉사활동 기관들의 정보도 얻어가게 되어서 취업준비에 있어서 방향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가치관 경매					
지시에 따라서 A항에 제시된 가치항목들에 따라 경매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기입하고, B항에 자신의 가치관을 정리하여 기술하시오.					
<A항 : 가치관 경매를 위한 가치 항목>					
번호	가치 목록	우선순위	낙찰액	입찰액	낙찰액
1	진정한 사람 만족스러운 결혼(예경)		10만원		
2	일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율)		5만원		5만원
3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기하(권력)		10만원		
4	친구의 존경과 사람 진정한 관계(우정)		7만원		
5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신감(확신)		10만원		
6	화목한 가족관계 행복한 가정생활(평온)		6만원		
7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영모)		10만원		
8	신체적 결핍없이 오래 사는 것(건강)	3	10만원		20만원
9	개인전달의 완벽한 도시살을 갖는 것(지식)		10만원		
10	경건하고 만족스러운 종교적 신앙(믿음)		10만원		
11	전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한달 2의 휴가(쾌락)		10만원		
12	일생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는 일(부유)		8만원		
13	편견과 차별 부정과 속임수가 없는 세상(정의)		9만원		
14	결함과 궁핍을 제거할 결호의 기하(봉사)	1	12만원		
15	구체적인 명성과 인기를 얻는 일(명예)	2	14만원		
16	직장에서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일(전문성)	4	20만원		
17	선택한 직업에서 성공을 거두는 일(성취)		25만원		
<B항 :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항목은>					
1	나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2	나는 명예를 다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한다.				
3	나는 건강을 가급적이면 포기하지 않는다.				

■ [사진 5] ‘가치관 경매’ 진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셋째, 다양한 진로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조별발표가 끝난 후 수업 후반부에서 자신의 진로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가치 기준에 대한 애정, 자율, 권력, 우정, 확신, 지식, 봉사, 명예, 전문성 등등 여러 가지 항목에 점수들을 부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체계적인 활동입니다. ‘상담심리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경제적 여건이 항상 고민 이었지만 직업에 대한 봉사, 명예, 전문성에 대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나의 기준점에 있어 확실하게 가치관이 재정립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학과: 심리상담학과 / 이름 : 조 하 연 (학번 : 1807802)
1. 새롭게 알게 된 것
'청년기본법'이라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2. 수업내용 및 이론에 대하여 좀 더 좋은 방법 제안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와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수련 활동은 보통 주로
학교 측에서 수련받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수련 활동을 찾아야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3. 질문
'청소년동반자'준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자격증 과정을 모두 마쳤는데 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까지 갖추는게 취업경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전체 소감
상담심리분야는 정말 다양한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자격증의 유무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무엇을 연구하고 싶고 어떤 대상의 내담자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Re:진로상담 4주차 소감문 제출 - 심리상담학과 1807802 조하연 2020년 9월 28일 (월) 오후 4:30
가* ★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와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수련 활동은 보통 주로
학교 측에서 수련받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수련 활동을 찾아야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수련받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들을 배우는 것이지만 자격증 취득과는 관련성이 없어요. 그 학회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면 그 학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패스하고 그와 관련된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질문
'청소년동반자'준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자격증 과정을 모두 마쳤는데 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까지 갖추는게 취업경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동반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상담학과 관련 석사 이상이면 가능하고 동반자는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분되는데 시간제는 석사 이상 또는 학부졸업 자격증을 갖춘자, 전일제는 자격증을 갖추고 석사이상입니다. 즉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기관에 따라 다를 수있어요 화이팅

■ [사진 6] ‘소감문’ 과제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 메일 답장

넷째, 교수님의 정성이 담긴 피드백형식의 수업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소감문’이라는 과제가 주어지는데, 수업에 있어 새롭게 알게 된 것, 수업내용 및 이론에 대하여 좀 더 좋은 방법 제안, 질문, 전체소감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여 교수님 이메일로 제출하면 내용에 대한 교수님의 답장이 옵니다. 호기심이 많고 소심한 성격으로 수업시간에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소감문’ 과제를 통해 답변들을 받아볼 수 있어 저에게는 귀찮은 과제가 아니라 마치 설렘 가득한 편지 같은 과제입니다. ‘청소년동반자’라는 직업에 관심이 많고 준비를 하고 있어 이 직업의 활동 내용과, 자격요건, 필요한 역량 등등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유해주셨기에 마치 남들은 모르는 골목길을 알려주셨기에 교수님의 소중한 피드백으로 진로 기반을 튼튼이 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환재 교수님의 강의는 교수님 중심이 아닌 학생들 중심의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일 등 비대면수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그런 교수님의 관심과 보살핌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수업 참여 및 학습방법 - “위기를 기회로”

슬기로운 취업 준비생활

목표설정을 위한 - Action Plan

심리상담학과 1807802
 조 하 연

① 부산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동반자”

자격요건 ※ 1과 2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대졸(4년)-박사, 경력 1년 1) 해당 자격증 소지 :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 3)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 및 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고용형태 - 1년 경력 및 신입지원 가능, 계약직 근무특성 - 청소년이 요청하는 시간대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 방과 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로 근무시간 일자 조정 가능, 최소 주 1회 방문 원칙 - 청소년의 도움 요청 시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소개서, 최종학력을 입증명세서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수료증사본, 자격증사본 각 1부씩	담당업무 -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업무, 월례회의 참석, 연간 6시간이상 업무 관련 교육수료
지원방법 - 우편접수, 메일발송	전망 -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프로그램 권유도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냈으며, 청소년동반자 사업이 명실상부한 전국사업으로 자리잡는 것과 서비스지역과 청소년동반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임 - 안정적인 사례 공급, 사설기관과 달리 명명실적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행정 및 다양한 기관 연계/복지 차원에서 접근 학습과 상담실 밖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 가능하여 다양한 상담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음

① 세부 목표

 3학년	 4학년	 대학원	 최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 이해하기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통해 성범죄피해자 법적체계 이해와 상담기법 숙지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을 통한 컴퓨터 작업 능력 향상 - 임상심리사 수련 과정을 통한 심리검사 전반적인 내용 이해 - 방학동안 상담이론 학습 - 개인 상담 프로그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근로 신청 및 활동 경험 - 청소년상담사 필기 및 면접 시험 준비 - 임상심리사 필기 준비 -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준비 - 가톨릭 상담심리대학원 입시 면접 준비 - 청예단 학교상담사 과정 학습 및 준비 - 운전면허증 취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재학 중 청소년동반자 지원 및 활동 -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가입 -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2급 레지던트 과정 수행 - 활발한 학회활동과 상담사 레발포대의 참석 - 석사, 박사과정 수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봉사 활동 - 진로상담전문가 과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넓은 포용력을 가진, 많은 내담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상담심리사로서 한 평생 봉사정신으로 살아 가며 활동하기 - 상담심리연구소 개설 - 우울증환자 관련 연구 및 치료활동 - 제자양성 - 예세이 책발간

② 최종목표를 위한 다짐

미래의 '나'

- '상담심리사'직업은 내담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전문직 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석사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항상 자신 스스로 성찰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상담심리분야는 통합적인 치료 접근방법으로 다가가므로 상담이론 이해와 숙련된 상담 기술, 심리검사 해석, 상담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상담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자원봉사, 근로장학생, 청소년동반자, 실습과 수련활동 등등 꾸준한 연구과정을 통해 **꾸준히 발전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 많은 내담자들에게 '마음의 쉼터'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상담심리사의 모습을 하우하루 그리며 한 평생 봉사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 [사진 7] ‘슬기로운 취업 준비생활’ 공모전 PPT 제출 자료 일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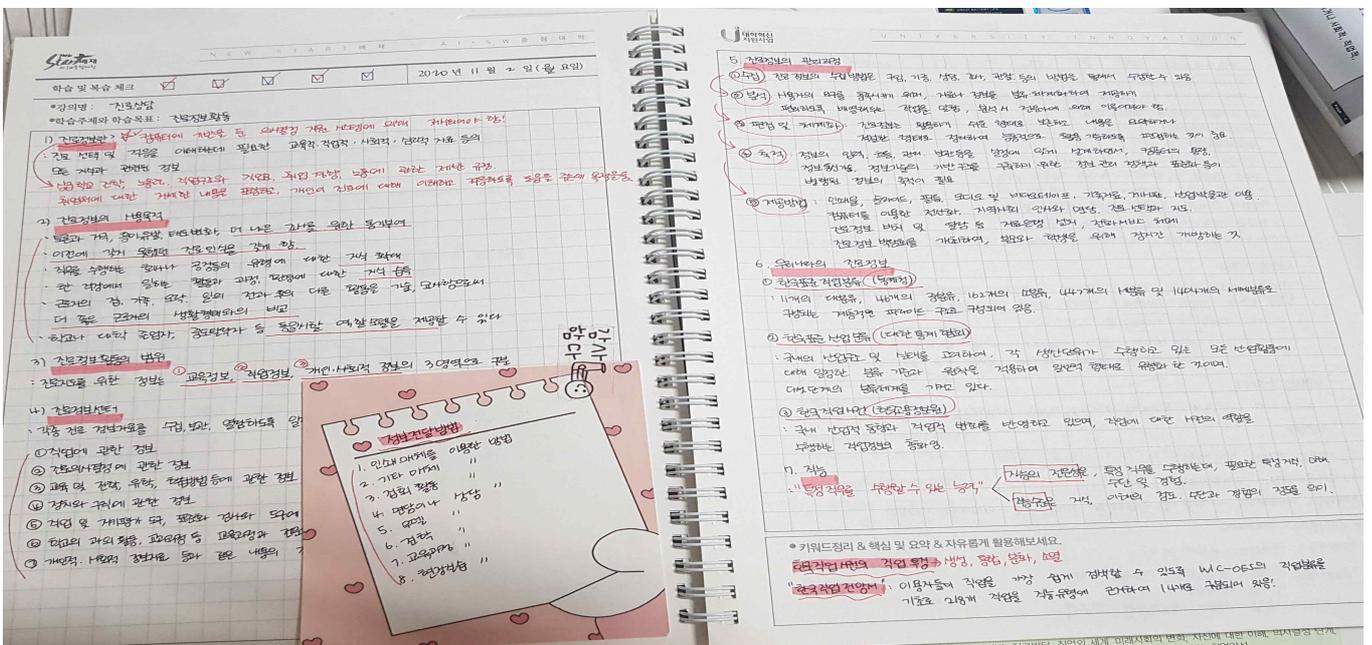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져 전공수업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교수님께서 필수과제는 아니지만 ‘진로수첩’이라는 선택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상담심리사’로 진로방향을 세웠지만 다른 학생들에 비해 준비도가 부족한 편입생이기에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슬기로운 취업준비생활-채용분석을 통한 최종 목표설정’이라는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진로에 대해 확실한 자신감이 없던 부분을 이번 공모전의 기회로 ‘상담심리사’의 진로계획을 세워보는 과정으로 삼아 ‘인생계획표’ 필수 과제를 해결해보는 것과 전공수업에 적응하기 위한 발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상담심리사 자격요건에서 요구하는 필요역량(학력, 경력, 자격증, 이론 및 지식, 자질)과 3학년부터 대학원과정까지의 세부계획, 최종목표를 위한 다짐

- 6 -

의 내용을 작성해봄으로써 스스로가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4. 미래 인생 계획서	
나이	계획 내용
24살	-사회복지실습 과정을 마무리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기 -대학원 진학 스터디 활동 및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준비하기
30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동반자로 활동하기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과정 수련 및 자격증 취득하기 -대학원 석사 과정 졸업하기
35살	-상담심리사로서 우울증, 불안증, 사회부적응 내담자 대상 연구 하기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및 과정 졸업하기
40살	-상담 개인 연구소 설립하기
45살	-현장에서 만난 사람과 인연을 맺어 결혼 및 자녀 입양
50살	-서구사회의 심리학과 상담학 분야 연구하기
55살	-개인 제자 양성해 상담학 분야에 이바지하기
60살	-남편과 1년동안 세계여행하기
65살	-은퇴를 준비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 남편과 봉사활동하기

■ [사진 8] ‘인생 계획표’ 과제 작성 내용



■ [사진 9] 학습노트 ‘진로상담’ 필기 정리 내용

이런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습노트’ 공모전에 참가하여 받은 노트 책에다가 수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이론 내용을 정리하여 꾸준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졌기에 점점 진로상담 수업시간에 세미나 토론때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발표해보는 등 진심이 담긴 태도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내 주신 과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수업 참여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저의 진로계획이 좀 더 선명해졌고 미래 또한 밝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희망찬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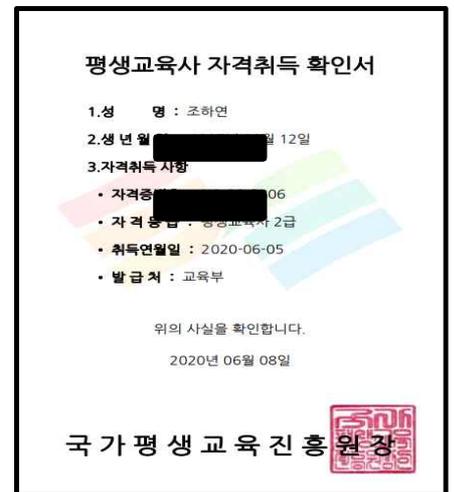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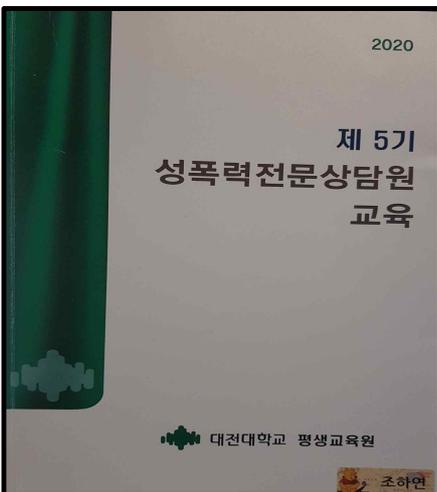
④ 학생의 변화 -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



■ [사진 10] ‘대전시민문화센터’ 평생교육 실습 내용



■ [사진 11] ‘새싹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실습 내용



■ [사진 12] 성폭력전문상담원 / 직업상담사 / 평생교육사 교육 이수 및 취득 내용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모두 고민하고 있는 주제로 ‘취업’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현 시점에서 교수님의 지속적인 응원과 정보제공, 피드백은 저에게 있어서 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받았습니다.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무기력해지고 초조해지는 와중에 수업 때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과 수업 중 세미나 토론과정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 보는 등 이러한 외롭지 않은 힘들을 수업시간 내내 받아 자신감을 얻게 되어 앞으로의 ‘상담심리사’ 진로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지원자격 준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준비하는 것과 폭 넓은 상담 분야 경험을 위해 피해자심리에도 관심이 있어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 실습을 주말마다 받고 있으며 4학년시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로 신청을 하여 활동해 볼 예정과 상담심리대학원 입학 준비, 관련 학회 가입 및 수련 등등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주 아침, 월요일의 시작을 ‘진로상담’이라는 좋은 수업으로 출발하여 매주 초심을 잃지 않게 되는 마음과 교수님의 적극적인 지지로 진로가 명확해져가 자신감, 자존감 또한 높아지는 많은 정신적인 선물들과 어제보다 더 나은 변화로 성장된 오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⑤ 5대 핵심역량 - “5가지 역량들의 조합”

<p>1-5. 자기소개서관련사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듀스 http://www.educe.co.kr - 사람인 https://www.saramin.co.kr - 잡코리아 https://www.jobkorea.co.kr 	<p>2-1. 면접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면접 : 면접위원 한 사람과 수험생 한 사람이 같이 앉아 자유로운 화제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되풀이하는 면접방식 - 집단면접 : 5명 내외의 면접관이 5명 내외의 응시생을 면접하여 다수의 응시생을 비교 평가하는 면접방식 - 집단토론면접 : 팀당 30분~1시간을 주고 5~10명으로 편성하여 평가하는 방식 - 블라인드 면접 : 면접관이 수험생에 대해 일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방식
---	--

■ [사진 13] ‘진로상담’ 조별과제 자기소개서 및 면접 PPT 자료 일부 내용

첫째, ‘인성역량’에 있어서는 요번 학기 필수 발표과제로, ‘자기소개서 및 면접요령’에 대한 주제로 저의 개인적인 자기소개서와 면접 관련 팁 자료들을 구성으로 ppt를 만들어 다른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취업준비나 대학원 진학 준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감성역량’에 있어서는 강의 형식이 세미나 토론방식이기에 발표학생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이 부분은 좋았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었고 이 수업을 듣는 학생 모두 전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취업의사가 있고 목표 의식이 뚜렷하기에 서로 힘이 되어가는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셋째, ‘지성역량’에 있어서는 ‘직업상담’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직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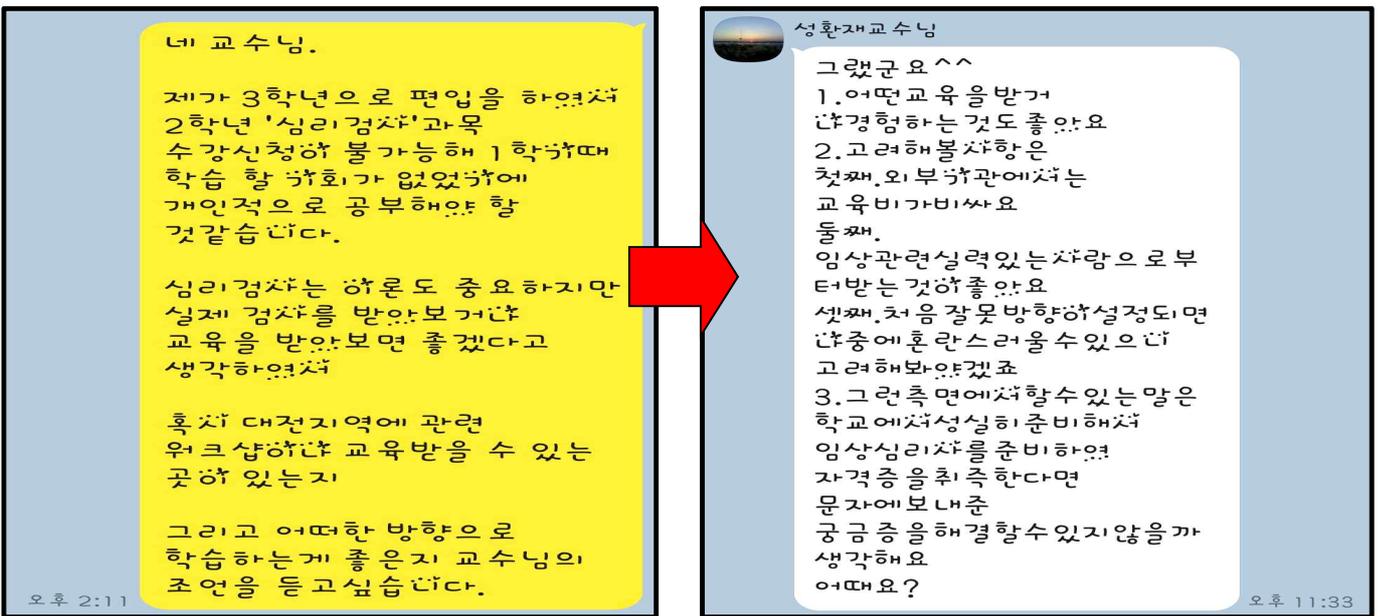
담의 구체적인 상담과정, 정보제공 등의 질문들을 교수님께 드렸으며 대체로 단기 상담과 고용노동부, 워크 넷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아 직업상담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소통역량’에 있어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중국인 유학생이 있어 한국어 위주 전공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저번 학기 조별과제를 함께해본 경험으로 알고 있기에 유학생이 해석하기 힘든 내용들을 카카오톡 채팅으로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었으며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 과정들을 알려주며 소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째, ‘수행역량’에 있어서는 ‘상담심리사’라는 직업의 진로 계획을 세우면서 교수님의 피드백과 정보만으로 채우는 것뿐 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역량으로 현재 학부생의 상황에서는 상담이론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담관련 카페에 가입해 스터디와 임상실습 등등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내담자를 상담하기 전에 앞서 상담자 자신 또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에 금요일 오전마다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을 받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장이 자신의 전공 하나로만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편입생으로서 느낀 바로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하는 동안에 있어서 다양한 수업과 공모전, 동아리, 대외활동 등등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가는 성찰하는 자세와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경험으로 생각하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자세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⑥ 수업 추천 이유 - “어쩌면 모두에게 필요한 수업”



■ [사진 14] 교수님의 정성스러운 답변 내용

성환재 교수님은 상담현장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기에 많은 현장경험이 있으시며 수업 중간 중간에 무엇보다 불공정과 부당함이 섞인 사회현실 속을 비판하는 교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고 미래의 상담자로서 ‘정직성’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당장의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진로방향성이 없는 학생들도 이해해주시며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진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교수님께서도 고민하는 주제라며 많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편입생이기에 뭔가 하나라도 좀 더 이루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수업시간에 보였는데 교수님께서서는 아직은 괜찮다며 전혀 늦지않았다며 저의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켜주셨습니다. 자신의 진로가 불확실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여서 불안한 상황의 학생들이라면 이 수업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들 모두 공통적인 고민주제이기에 진로관련 프로그램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것에 가치를 중점적으로 두는지 파악하게 되어 진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수업을 수강신청 하기 전에 앞서, 수업의 제목이 ‘진로상담’이라고 해서 진로가 꼭 정해져 있어야만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나의 진로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에 대한 피드백을 교수님으로부터 꾸준히 받으며 불안했던 마음을 ‘난 잘하고 있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용원을 받게 되는 수업이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불안정하다고 생각되는 미래에 대한 반복된 고민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이 수업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기에 성환재 교수님의 ‘진로상담’ 과목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말하기, 그것을 통해 즐거움을 느낀 수업 ‘한국어화용론’

2020-2학기 우수상 /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김유진

말, 말하기... 우리가 익숙하게 해오던 것들을 대학에 와서 수업으로 듣게 되었다. 나는 이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말하기’ 라는 것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수업을 통해 느낀 매력을 이 글을 통해 펼쳐보려한다.

수강신청 개설과목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다. “어? 황은하교수님 수업이 이번학기에도 있네? 지난학기 한국어문학과IT 수업 되게 유의미하게 들어서 황은하교수님 수업 또 듣고 싶었는데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강의 과목명을 보니 ‘한국어화용론... 무엇을 배우는 수업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번 2020-2학기 화용론을 배우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은 화용에도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하는 발화들이 단순히 쉽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용의 여러 범주에 속하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나는 여러 가지 화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 이 수업을 들으며 나는 ‘간접 화행’ 이라는 수업 내용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었다. 우리 학과 전공생들이 황은하교수님의 한국어화용론 수업을 듣게 된다면 특히 ‘간접 화행’ 파트를 추천하고 싶다. 내가 굳이 이 파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내가 이 파트를 수강하며 흔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 ‘비꼬는 말이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하던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표현으로 쓰는 것인지 간접 화행 중 왜 저런 표현행위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어화용론 수업은 LMS 녹화 강의와 필요 시 Webex를 활용하여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먼저, LMS 녹화 강의로 진행하실 때에는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데 있어 시간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 주차 해당하는 하나의 차시에 수업에 학생들의 강의 시청에 대한 흥미와 강의에 대한 지루함이 들지 않게끔 적절한 시간에 끊어 한 차시 당 3~4개 정도의 강의 영상을 올려주시어 강의 영상 1개를 보는 시간이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 집중하기에 좋았으며, 또한 이전 차시 수업내용의 복습을 꼭 해주시어 수업 초반이 이전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에 수업을 들으며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겨 더욱 유익한 수업시간이 될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 과제나 해당 차시에 복습용 퀴즈를 출제할 경우에도 학생들의 답안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학습에 있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피드백을 해주시는 점도 매우 유익하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교수님께서 과제나 퀴즈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수업을 같이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나의 답안이 보여지는 것이어서 퀴즈나 과제를 잘 해냈든, 못 해냈든 내 과제물이나 퀴즈 답안이 공개 되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내 것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어떤 주차 강의에 교수님께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며 ‘유진 학생의 과제는

이러한 부분이 참 좋았고 또 자료조사한 것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여 제출한다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피드백을 해주신 이후 나는 내 과제물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얻을 수 있었고 그 이후 교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피드백을 해 주시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과제가 있었던 차시마다 ‘다음차시에 교수님께서 꼭 과제물을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다. 또 Webex를 활용하여 실시간 강의를 하실 때에는 시험 전과 시험 후였다. 시험 전에는 지금까지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며 강의 내용을 최종 정리 해주셨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 종종 내주셨던 퀴즈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며 풀어보기도 하였고, 퀴즈에 출제된 문제들을 응용한 문제를 준비해 오시어 그 문제들도 함께 풀어보며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 시간을 활용해주시는 점에서 내가 지금까지 수강해 본 과목 중 실시간 강의를 경험한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었기에 나는 이 강의방식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 또 다른 차이점으로서의 좋은 강의 방식은 시험 후의 실시간 강의 내용이다. 내가 지금까지 3년동안 학교를 다니며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시험이 끝나고 채점도 완료 되고 난 후 시험의 결과가 궁금하다면 해당 수강 과목 교수님께 직접 여쭙보는 방법과 둘째는 성적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을 통한 방법이다. 하지만 내가 황은하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바로 이것이다. 시험 직후 교수님의 직접적인 피드백.....! 나는 이 피드백을 통해 내가 강의 중 어느 파트가 공부가 부족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보통의 다른 과목 시험들은 시험장을 나와 내가 쓴 답안을 떠올려 보기는 하였으나 시험을 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면 나 잊어버리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방학때나 시험이 끝나고 여유로운 주차를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나에게 매우 신선한 수업 방법이었다.

이렇게 교수님의 수업방법이 너무 좋기에 나는 생각했다. ‘교수님께서 아무리 열정적이고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하신다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 먹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좋은 지식들도 헤아릴 수 없겠구나.....’ 라고 나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첫 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교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매 주차 교수님이라는 정보의 늪에서 발버둥쳤다. 그 발버둥 끝에 얻은 나만의 공부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첫째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는 녹화강의 영상을 수업자료나 필기를 보지 않은 채 그냥 듣기, 둘째 교수님께서 강의영상과 함께 올려주신 PDF파일 강의자료를 복사하여 강의자료에 없는 내용 필기하기, 셋째 강의 영상을 한 번 더 보며 놓친 부분 확인하고 필기하기, 넷째 강의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기 나는 이 4단계를 매주차 동안 하며 교수님께서 주시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 모든 것을 단 한 주차도 빠지지 않고 한다고 하여도 시험 때는 깜빡잊고 쓰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찾아낸 나만의 공부방법으로 학습을 이어가니 확실히 황은하 교수님의 수업을 처음 들던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확연히 좋았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3학년 2학기 나는 다짐했다. 직전하기 시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기로 그 결과를 위해 찾은 나만은 4단계 공부법, 그 공부법은 단계를 잊지 않으며 항상 노력하기로 나는 내 자신과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나만의 4단계 학습법을 통해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지금, 나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그냥 수업을 듣고 그것을 노트에 정리하며 빠진 부분이 있을 때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에서는 그 파트의 정리를 중단하고 따로 기록해두었다가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난 후 다시 정리를 했었기에 더욱 시간이 많이 걸렸고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면서도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했기에 그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물 속에서 헛발길질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4단계 공부법을 찾았고 헛발길질만 이어가던 물 속에서 나는 헤엄쳐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이 방법을 찾은 후 나는 ‘한국어화용론’ 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수강하였고 중간고사에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며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시험을 치르며 느꼈다. ‘직전학기보다 답안을 쓰는 시간과 답안에 대한 정확도가 늘었다.’ 나는 이를 시험이 끝난 후 내가 쓴 답안과 그동안 수없이 정리하고 다시 강의를 들으며 봐온 강의 자료와 내 노트를 보며 알 수 있었고, 또한 LMS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전학기 시험때 쓴 답안과 이번학기 중간고사의 답안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도 정확도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화용론 수업을 통해 새로운 공부방법을 찾고 더욱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음을 그리고 학교를 다닌지 몇 년만에 드디어 찾은 나의 공부방법을 통한 성취도가 그저 이렇게 뿌듯할 수 밖에 없음을 나는 그저 행복해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몸이 가벼워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을 느꼈다.

이를 통해 나는 깨닫게 되었다. 우리 학교의 5대역량인 인성, 지성, 감성, 소통, 수행 이 5가지 역량 중 중요한 역량은 ‘수행’ 이라고..... 만약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인성, 지성, 감성, 소통, 수행’ 중 어떠한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좋은결과를 가지고 싶다면 ‘지성’ 이 중요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수행’ 이 가장 중요함을 황은하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며 너무도 절실히 느꼈다. 지성 즉,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함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지식을 알기만 하고 그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수행’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 Henry Ward Beecher(헨리 워드 비처)는 말했다. ‘어떤 분야에서든 유능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 타고난 천성과 공부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그것이다.’ 라고..... 하나의 학문 또는 분야에서 유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나는 부단한 노력 즉, ‘수행’ 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평소 공부와 관련된 명언은 잘 찾아 보지 않는 나에게 명언을 찾아보게 하고 저 명언에 극히 공감하게 한 이 ‘한국어화용론’ 과목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수행’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음을 배우게 해주었다. 가장 가까이 내 주변만 둘러봐도 자신이 원해서 그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여 대학교에 진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하기 싫고 힘들어지면 ‘아, 자퇴할까? 휴학할까?’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자퇴와 휴학을 고민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할 만큼 죽어라 노력해보고 결정하자! 그 때 생각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끊임없이 동요하는 교육의 현장으로

2020-2학기 우수상 / 유아교육과 차현주

<Silenced Stage- 고요한 나>

마음의 물결이 일지 않는 평범하고 고요한 상태. 어쩌면 이는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육이자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적인 고요함은 결국 우리의 자아를 삼켜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지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배움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남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소통하여 올바른 나만의 길을 형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직의 길을 걸으면서도 배움을 나누는 것에 익숙지 못했습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에 가려져 ‘틀림’으로 명명해야 하는 것이 두려웠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나만의 지식 우물 속에 갇혀있었습니다. 교육학개론 수업을 듣는 첫날, 이현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안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경적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스키마 즉, 배경지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 다시 말해 인지적 불평형화가 생길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욕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모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겪어보는 것, 그것이 교수님께서 추구하는 작은 교실 안의 믿음이었습니니다.

[교과목 정보]

주차별 수업계획

주	내용
1	1. 교육의 개념적 기초 2. 교육학이란 무엇이며 어떤 학문분야로 이루어져있는지 등 교육학을 개론의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소개 3. 모듈구성 및 핵심어 협동수업 소개(LMS공지안내) 4. 과목분담의 <u>협동학습</u> 의 학습효과성 안내
2	교육의 역사적 기초 1. 교육의 발생과 제도적 교육의 전개 2. 서양의 교육 3. 한국의 교육 4. 핵심어 <u>모듈별 협동수업</u>
3	교육의 철학적 기초 1. 교육철학의 학문적 성격 2. 현대교육철학의 사조 및 탐구주제 3. 핵심어 <u>모듈별 협동수업</u>
4	교육의 심리학적 기초 1. 교육심리학의 성격 2.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원리 등 3. 교육심리학의 기능 4. 핵심어 <u>모듈별 협동수업</u>
5	교육의 사회적 기초 1. 교육의 사회적 기능 2. 교육기회균등과 교육평등 3. 사회불평등과 교육 4. 핵심어 <u>모듈별 협동수업</u>
6	교육과정 1. 교육과정 발달의 역사적 이해 2.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과 평가 등 3. 핵심어 <u>모듈별 협동수업</u>
7	교수-학습 1. 교수-학습 2. 교수의 3대 변인 3. 가네의 교수이론 4. 핵심어 <u>모듈별 협동수업</u>

교과목 정보

과목구분	교직필수과목				
교과목 개요	본 강의는 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이를 학교 현장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u>교육이란 무엇인가</u> 에 대해 생각해보고 둘째, 교육의 역사적, 철학적, 심리적, 사회적, 행정학적 관점을 알고 셋째, 교육의 교육과정과 평가, 상담 등에 대해 알고 넷째,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함으로써 교육자로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필수역량	인성	감성	지성	소통	수행
	0	0	0	0	0
학과역량	기독교 정신의 나눔과 섬김 조화로운 발전에 헌신하는 공동체적 학생을 존중하는 공간적 수용능력 능동적, 탐구적인 자기주도적 수행능력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의사결정능력				
교과목 학습목표	교육학 영역 전반을 다루되, 각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 이론을 숙지할 수 있다며 주차 제시되는 핵심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교육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함께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다. <u>교육이란 무엇인가?</u> 에 대한 <u>자신만의 경의를</u>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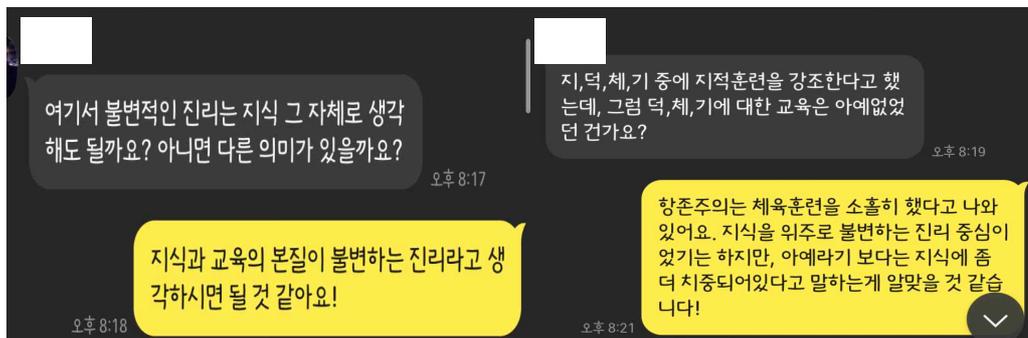
과연 교직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교육이 갖는 의미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의 정의가 달라지고, 이는 우리의 교육 현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해진 딱딱한 정보성 강의를 들으며 깊이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고, 진정으로 ‘내가 교직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 화요일에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나만의 교육적 가치관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그 단 하나의 이유를 찾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목표였음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중요한 어휘 하나, 꼭 외워야 하는 핵심어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것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말해볼 기회를 주셨고,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고찰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 교과목의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매주 교수님께서 정해진 핵심어 세 가지를 각 조의 구성원들과 서로 나누어 설명하고 교육적 의의를 토론해 볼 것. 둘째,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LMS 시스템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에게 질문할 것. 셋째로, 시험 전주에 시험 범위 핵심어 정리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며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것. 처음에는 조금 특이한 방식이라 생각하여 활성화되지 못했던 게시판은 점차 서로 화합을 이루고 문답을 나누는 열정적인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수님께서 따로 알려주신 것은 아니지만, 매번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익숙해져 점차 ‘상호 협동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교수자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의 활동은 학생들이 꾸며나가는 수업, 그것 또한 예비교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Imbalance- 불균형을 경험하다>

팀원들과 처음 회의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저는 그 주에 맡은 핵심어인 ‘항존주의’에 대해 다양한 논문도 찾아보는 철저함을 갖추었기에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각자 핵심어 1개씩을 공부하기에 자신을 제외하고는 팀원들이 기초 개념을 모른다는 상태임을 인지하고 준비했어야 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인터넷을 찾아보고, 교재를 다시 한번 읽은 후에야 팀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토론의 장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었고,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교육의 현장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듈별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점차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수록 타인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또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질문은 내 지식수준을 나타냅니다. 서로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은 더욱 좋은 대답을 위해 뇌를 능동적으로 가동합니다. 함께 교사를 꿈꾸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등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좋은 수업 방향입니다. 따라서 교수님은 서로 끊임없이 질문하며 공부한 것에 관한 토론을 하는 ‘하부르타 학습법’을 중시하였습니다. 의견을 나누며 구성원이 서로에게 영감을 얻어 한 걸음 더 큰 보폭으로 나아가는 교사, 그것이 교육학개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교육이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핵심어 회의 질문을 하는 모습

교육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흔들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현주 교수님은 불균형을 느끼는 것이 첫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사라고 완벽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자신의 틀림을 인지하여 스스로 지식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교사의 덕목임을 강조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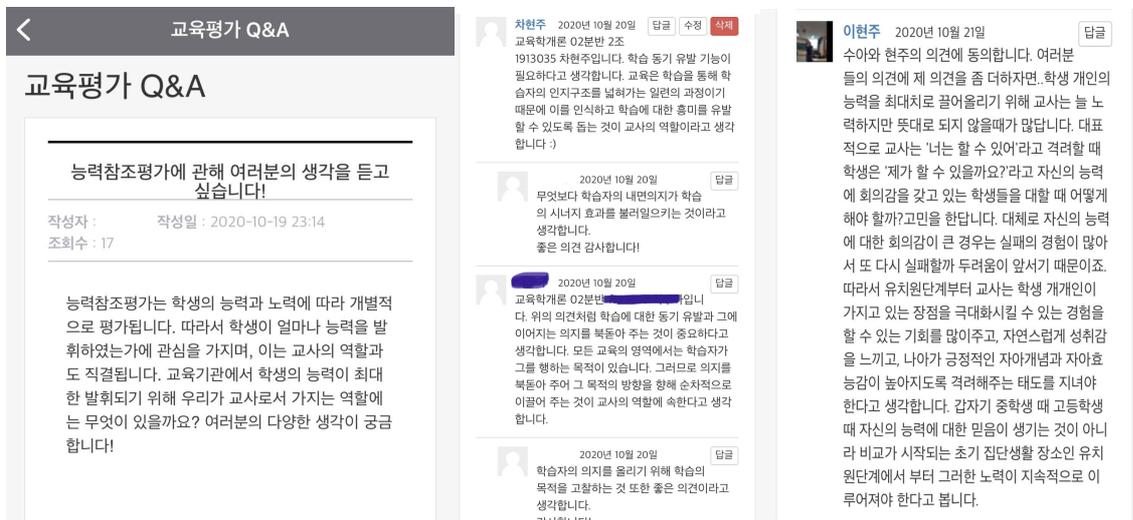
<assimilation & accommodation- 동화와 조절을 반복하다.>

‘동화’란 새로운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나의 지식 구조에 통합하는 인지 과정을 말합니다. 또, ‘조절’이란 내가 가진 기존의 정보가 오류라는 것을 깨닫고 알맞게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 교과목 수업을 ‘동화와 조절’에 비유한 것은 앞서 말한 상호협동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의 수업 상황과 더불어 학생 수가 다소 적었던 교직 수업이었기에 여러 가지 한 계점이 존재할 수 있었지만, 이현주 교수님은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셨습니다. LMS 플랫폼에 ‘Q&A 게시판’을 올려두어 12명의 학생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은 아니었지만 모르는 점이 있다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의 댓글을 통해 지식을 정교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게시판에 단 댓글에 오류가 있다면 교수님은 이에 대한 피드백 댓글을 달아주어 정정하고 새롭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원했던 교수님은 무엇보다 ‘소통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셨습니다.

게시판 활동 중에는 핵심어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 핵심어에 대한

교사로서의 생각을 묻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능력 참조평가’가 핵심어 중 하나였는데, 한 학생이 ‘능력 참조평가는 학생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교사로서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기 위해 능력 참조평가의 개념을 다시 찾아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는 학생의 동기유발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후 교수님께서도 댓글 피드백을 달아 동기유발도 중요하지만, 덧붙여서 자아개념과 자아효능감이 높아지도록 격려해주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의견을 첨가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활동 게시판은 단순히 지식 관련한 질문과 답을 나눌 때도 있었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교사로서의 역량을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생각하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인성역량’과 교사로서의 ‘감성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함께 지식의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지성역량’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시판 활동 모습

반대로, 제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달아보기도 했습니다. ‘역량기반 교육’은 현장에서의 업무적용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만들어진 교육과정인데,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교사가 관찰, 즉 학습분석을 하여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교수님께서서는 개인적 역량이 사회적 요구 역량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량교육 과정이므로, 이러한 쟁점을 사회가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사의 역할에 한정되었던 질문과 답변이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사회적인 부분으로 확장 시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다른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의 가치관을 더 보완하여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었기에 동화와 조절의 과정이 반복되는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공학 Q&A

역량기반교육 쟁점

작성자 : 차현주 작성일 : 2020-10-31 20:26 조회수 : 12

교육학개론 Q2분반 2조 1913035 차현주입니다. 조원들과 역량기반 교육의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학우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게시글을 올립니다.

역량기반 교육의 쟁점으로 역량을 기른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을 개인과 집단 중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이 있지만 전공별로, 급별로 요구되는 특수성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처럼 특정 분야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역량과 구체적 역량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량의 수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도 논란이 됩니다. 탁월한 직무 수행자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통과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역량을 도출할 때 특정 직무를 우수하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맞출 것인지 아니면 조직에 요구되는 직무 또는 과제에 맞추느냐에 따라 역량의 수준과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11월 1일

교육학개론 2분반 4조 [이름]입니다.

먼저 생각의 장을 마련해주어 고맙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개개인의 학습 특성을 고려하는 학습분석을 통해 역량기반교육의 방향을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동 관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량기반교육의 목적은 현장에서의 업무적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성과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졸업생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효과적인 업무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별화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인 우리는 역량기반 교육의 목표에 맞추어 학습분석을 통해 학생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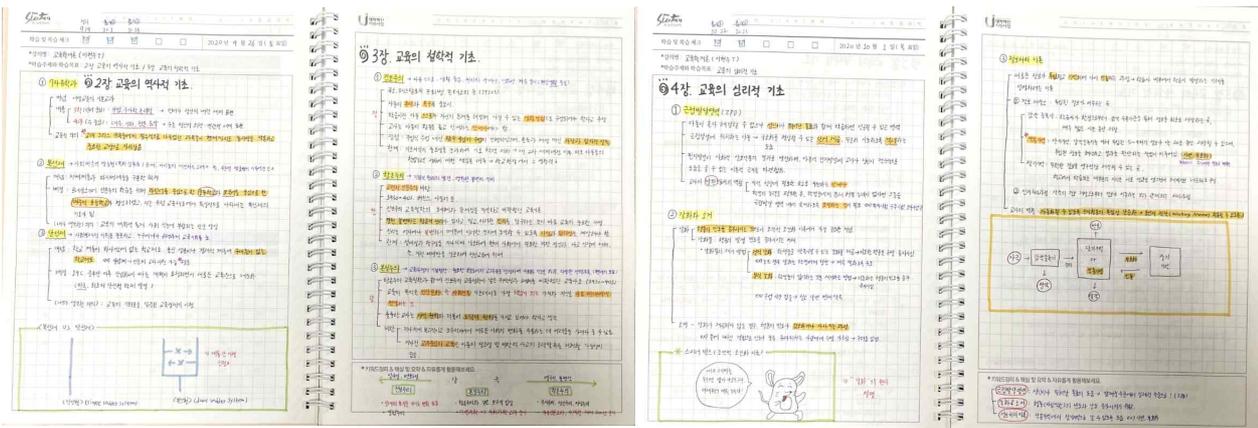
이현주 2020년 11월 2일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집단(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발개로 여러분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아냐요? 집단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역량은 제쳐두고 집단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이것저것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세대는 역량교육과정의 탄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보니(시간+비용) 사회에서는 학교에 인력배분에 적합한 책무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직무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 역량을 사회적 요구에 맞춰 발전시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 역량=사회적 요구 역량. 개인적 역량이 특출날수록 사회적으로 선택받기 쉽죠. 역량교육과정은 과거 인식에 사로잡혀있는 학교당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equilibration- 끊임없는 평형화>

이처럼 동화와 조절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을 ‘평형화’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어떤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했을까요?

먼저, 매주 핵심어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이 매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핵심어를 위주로 정리해보았고, 개념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적 의의가 무엇인지 써보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렇게 한 권의 ‘나만이 핵심노트’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시험 기간에는 이 핵심어를 위주로 공부하고 비대면의 상황일지라도 교수님께 배재록을 이용하여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육학개론 수업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자기 주도로 일을 행하는 ‘수행역량 향상’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만의 핵심어 노트

둘째로, 이렇게 제가 생각한 교육적 의의를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이 일러주신 불편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스스로 지식의 구조를 변형하고자 학습 모드를 제작하여 내가 가진 지식을 검토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비대면 플랫폼인 ‘ZOOM’을 활용하여 매주 핵심어뿐만 아니라 교육학개론에 얽힌 다양한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교육학개론의 핵심어인 생활

지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회상해보고 이것이 내 교육적 가치관과 생활지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주제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어린 시절에 겪었던 긍정적인 생활지도와 부정적인 생활지도를 떠올려보며 나 또한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이러한 경험을 주진 않았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교사의 바람직한 태도는 늘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는 반성적 사고이기 때문에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성찰적 활동은 예비교사인 우리에게 훗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수님의 추천에 따라 논문을 참고한 교수계획안을 짜서 대면으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계획해본 교수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원들이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어 서로의 활동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 모듬회의

처음에는 단순히 고요함을 추구했던 제가 이제는 끊임없이 동요하는, 그리고 불안정한 교육으로 한 발짝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현주 교수님께서 던져주신 작은 돌맹이는 내 안의 평화를 깨뜨렸지만, 동시에 밖으로 나와 다양한 세계를 맛보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이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생각한 것이 남과 다를지라도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만들었던 고정된 틀을 변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누군가의 좋은 변화를 바라다면 교육자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평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현주 교수님은 책에 나오는 지식만을 교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 스스로 교사로서의 ‘태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일러주신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는 교육은 지금의 제 교육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일깨움을 주는 교사가 되어라. 지금도 교수님의 말씀이 귓가

에 맴돕니다. 누군가 “넌 어떤 교사가 되고 싶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다를 수 있음을 아는 ‘동요하는 교육’ 을 깨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전달되는 말

2020-2학기 우수상 / 의류패션학과 김세이

제이슨 포터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던 ‘토플’은 ZOOM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이 수업은 말 그대로 토플 시험에 나오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토플 시험은 듣기, 독해, 말하기, 쓰기 영역을 테스트한다. 나는 토플 시험을 2학년 때부터 3학년인 지금까지 준비해왔는데, 교환학생 목적으로 공부했었고 개인적으로 교재를 사서 혼자 공부하며 토플에 대해 알아갔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무기 하게 연기되는 시험으로 토플 공부에 대한 의욕을 서서히 잃어갔다. 그러던 중 학교 교양 강의에 토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현재 수강하고 있다.

토플은 영어권 나라에서 실제로 수업을 듣고, 생활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듣고 말하는데 큰 중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영어로 말하기 위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어라는 언어에 친숙하지 않고, 실생활에선 영어 회화를 더더욱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영어 문장을 만들고 입 밖에 꺼내는 것이 어색했다. 게다가 따로 학원에 다니지 않아 누군가가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수업에서는 토플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을 깊이 알 수 있었다. 그냥 책만 보며 혼자 공부했을 땐 약간 불친절한 느낌을 받았다. 왜냐면 모든 글이 영어로 쓰인 것뿐만 아니라 설명이 너무나 간결히 되어있어 이해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서는 수업 첫 시간에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해 주셨고 수업마다 그날 배우는 챕터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셨다.

총 6가지의 Task는 실제로 대학(원)에서 응용할 수 있는 대화들이다. 개인의 의견을 표현,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동의와 비동의, 문제 해결, 제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나는 Personal Opinion Task인 취향과 의견을 제안하는 걸 가장 좋아한다. 아무래도 질문을 보았을 때 가장 빨리 생각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의 취향을 듣는 것도 재미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이라던가 ‘추억이 있는 날’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내가 평소 선호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서 편하다. 굳이 곰곰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바로 나오는 대답들이기 때문이다. 수업 초반에 이 Task에 대한 질문들을 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게임’에 대한 질문이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교수님의 대답을 들으며 나의 생각도 공유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지 못하고 화면에서만 마주 보는 친구들과 친분이 쌓였다.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오프라인에서 만나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전까진 한 번도 참여형 온라인 수업을 해 본 적이 없어 수업 첫날엔 당황했었다. 하지만 대화를 주고 받아보니 참여형 온라인 수업의 이점을 알게 되었다.

토플 수업에서는 제공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2분여 정도 생각한 후 'ZOOM' 을 통해 그룹을 만든다. 나 포함 2명 또는 3명의 친구와 함께 방이 만들어지면 서로가 생각한 답을 영어로 스피킹 발표를 한다. 그룹을 만들 때마다 만들어지는 그룹 구성원은 랜덤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모든 친구와 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다. 교수님께서서는 중간에 들어와 우리들의 의견을 듣고 고쳐야 할 점과, 틀린 문법을 알려 주신다. 내가 틀린 그때, 바로 올바른 답과 조금 더 부드러운 단어 선정으로 개선할 수 있어 영어 스피킹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즉흥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라서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시험 현장을 생각한다면 실력 향상이 되는 연습법이라고 생각했다. 이 경우엔 들어주는 사람과 알려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경우라 수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혼자 공부할 땐 이 경우가 가장 불편했는데 해소되어 좋았다.

매주 영어로 진행되는 Task 리스닝은 영어 단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각 Task에 있는 단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다. 문장을 만들 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퀴즈를 풀며 알아보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는 교수님께서 영어로 설명해 주신다. 이 부분에서 영어로 이해하는 실력이 는 것 같다. 간결하고 쉬운 단어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좋았다.

수업 끝자락엔 마지막 질문을 함께 읽고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다. 그 후 매주 있는 과제로 이어진다. '밴드' 라는 애플리케이션에 수업 내용을 참고하여 나만의 답으로 재창작한 것을 녹음해서 올리는 것이다. 교수님께서서는 '밴드' 에 게시글을 올리시고 학생들은 그 게시글 댓글에 자신의 녹음본을 올린다. 과제를 제출할 기간은 4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때, 과제 녹음본은 나만의 답으로 재창작을 해야 한다. 단어 선택이라든지, 문장 순서 등 본인이 고민하여 적절한 답을 찾는다. 또한, 이 녹음본은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다. 첫 주차에는 유창하지 않은 나의 영어 실력이 매우 부끄러웠지만 몇 번 해 보니 그 감정이 단순히 배우는 입장으로 바뀌어 좀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차올랐다. 나의 스피킹 외에 다른 대답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다음번에 참고하여 더욱 풍성한 대답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다른 학생들의 녹음본을 듣고 문장 어순과 억양 등을 참고하기도 했다.

교수님과의 개인적인 소통은 '밴드' 안에 있는 1:1 채팅으로 이루어졌다. 한 번은 과제 게시물이 올려져 있지 않아 교수님께 채팅으로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답장을 해주시고 게시글도 생성이 되었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쉽게 반영되는 소통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이 수업을 통해 개인 공부로 연결했던 것은 바로 교수님의 예시였다. 영어로 답을 할 때, 혼자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전체적인 틀을 모르면 선뜻 새롭게 만들기가 힘들다. 예시를 들으면 한결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교수님의 예시를 이용해 처음에는 비슷하게 만들어보고 그 후 조금씩 변형하여 문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익혔다. 뭐든지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훑어보고 말해보았다. 그렇게 하니 문장 그대로 머릿속에 남았다. 계속하다 보면 다음에 응용해서 또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수업을 통해 배재대학교 핵심역량에 모두 대체로 도움이 되었는데 가장 돋보였던 역량은 소통역량이다. 일단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수업이다 보니 나 외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의견을 수용한 적이 많았는데 친구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부분이 그랬던 것 같다. 게다가

가 원어민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 익히 듣고 가끔 문화적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며 함께 원활하게 소통했다.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든 것도 이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감성역량과 연결되었는데 다른 생각에 공감하는 것이 그랬다. 지성역량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이해하고 수업을 따라가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수행역량은 과제를 하면서 정보를 활용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게 그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인성역량은 책임감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다.

나는 영어를 말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 원어민과 실제로 대화할 기회가 적어서 더더욱 그랬다. 내가 토폴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영어 능력을 키우고 싶은 욕구가 들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던 것도 있지만, 공부하기에 좋은 그 환경이 놓인 것만으로도 개인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심지어 조금 사그라들었던 욕망이 발돋움하여 공부를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말을 영어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영어 공부를 계속 공부할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다.

선택이 아닌 필수, ‘금융’을 바라보다

2020-2학기 장려상 / 경영학과 이선영

실용금융의 나비효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금융문맹률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2000년대 이전 평균 금리 12%를 유지하던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저축만 하면 된다는 주의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제로금리, 못해도 금리 1%인 이 사회에서 저축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만족스러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금융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배재대학교 교양 강의로 윤대광 교수님의 ‘실용금융’을 듣기로 마음먹었고 이것은 많은 나비효과를 만들어 2020-2학기를 금융의 한 학기로 만들어주었다.

실용금융 강의는 LMS 녹화강의로 진행되어 언제든지 보고 싶은 시간대에 볼 수 있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매주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최근 금융 및 경제와 관련된 시사들 5~8분 이내에 브리핑을 해주셨다.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상장과 라임사태 등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재의 시사들 많이 설명해주셨고 이러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내 스스로 즐겁다고 느껴서 매일매일 경제시사를 챙겨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 실용금융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3가지가 있었다. 주식, 펀드, 신용. 대한민국 투자에 대한 인식은 돈을 버는 것보다 잃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주식과 펀드는 길게 보면 기업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기업분석과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한 후에 투자를 한다면 개인과 기업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과제로 자신의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것을 내어주셨다. 하나는 1억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운용할 금융상품, 다른 하나는 내가 1억이 있다면 어떤 금융상품을 운영할 것인지. 상황에 따른 저축과 투자의 비율 등을 정하고 어떤 상품으로 운영을 할 지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제였다. 이 과정에서 주식, 펀드, 채권 등의 상품을 알아보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진행하는 모의투자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과제를 끝으로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공부하는데 기울이고 있다. 참고로 모의투자대회에서 원금보다 이익을 내고 있어 금융 공부에 더욱 재미를 느끼는 중이다.

실용금융 강의가 만든 또 다른 나비효과는 대외활동이다. 대학생이 되어 금융공부를 해도 늦지 않지만 청소년 시기부터 알아둔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가치관과 맞아떨어진 ‘KB금융그룹 대학생 경제금융 교육봉사단 폴라리스’를 알게 되었고 최종선발 되어 매달 4회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금융경제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내가 실용금융 강의를 통해서 느낀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과 교수님께 들었던 BTS의 빅

히트 주식 사례를 들며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했다. 강의가 끝난 후 설문조사를 보면 금융이 재밌었다, 이해하기 쉬웠다 등의 내용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신용에 대한 강의를 인상이 깊어 이것을 더 많은 대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신용등급 관리는 중년층만 하는 것이 아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 청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아 발표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YWCA 금융경제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 참여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운 좋게 알게 되었다. 2030 청년세대를 타겟팅한 ‘신용’ 강의안을 준비하여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실용금융에서 배웠던 신용관리 방법을 포함하여 신용등급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자료조사 후 강의안을 만들어 예선에 제출했고,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 서울에서 PT발표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비슷한 주제를 선정한 것에 비하여 신용이라는 차별화된 주제를 선정한 것이 나의 본선 진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대학생들이 신용등급 관리에 관심이 없다는 설문조사 지표와 왜 대학생 때부터 신용등급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신용등급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는 O,X퀴즈로 준비하여 재미를 더했다. 이러한 점들을 인상 깊게 봐주셨는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주최와 한국씨티은행 후원으로 열린 경진대회였기 때문에 상금도 두둑했다.

나는 2020-2학기가 실용금융 교양 과목 하나로 인하여 지성과 수행.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학기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수업으로 금융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나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으며 금융이라는 주제 하나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중학교의 금융경제 선생님이 되어보기도 했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했다. 좋은 결과에 걸맞는 좋은 과정들이었다. 금융수업과 금융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다 등의 부정적인 생각 보다는 시간을 내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를 내가 즐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일상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식도 얻고, 금융인이라는 진로 방향도 찾고, 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행복과 스펙도 얻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실용금융 강의였다.

따뜻한 마음을 드려요

2020-2학기 장려상 / 가정교육과 이아름

한 번쯤, ‘가족’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족이란 정서적 안정감, 소속감, 행복감을 주는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며 가족이라는 집단에 상처를 주며 갈등, 학대, 죽음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전보다 비교적 길어지면서 더욱 상황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가족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행복한 삶, 역동적인 가족의 모습, 더 나은 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2020년 2학기에 수강했던 ‘가족 상담 및 치료’라는 과목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상담 및 치료’라는 과목은 교과명 그대로 가족을 상담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업의 내용은 가족의 역동성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론적 체계를 살펴보고, 가족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갈등 사례를 바탕으로 원인과 대처 반응 유형을 분석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후 상담의 모형들의 개념과 기본 전제를 알고, 상담 치료의 목표에 관한 기법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상담에 전체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 능력을 갖춘 뒤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를 익혀 단기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접근 방법들을 학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을 수강하면서 배움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갈등의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오래 쌓인 사례를 보면 A라는 원인이 B라는 결과를 나오게 했지만, 또다시 B라는 결과가 원인이 되어 A라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가족 갈등이 벌어지게 된 최초의 원인을 알고자 ‘왜’라는 질문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다방면의 시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 도움 되었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사회는 큰 사회와 마찬가지로 강해진 자신의 감정을 모두 표출하기보다 상황에 적절히 조절하여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혹은 기분이 상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로서 내담자에게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되며 내담자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공감과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족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의 내용에 대한 흐름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족의 갈등의 다양한 사례가 필요하고, 갈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수님께서 매주 학습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토의 학습 방법으로 LMS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사례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교수님께서 실제 사례를 말씀해주셨으며 때로는 YouTube으로 시각적 자료를 제시해주시며 수업의 흥미도와 관심도, 집중도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사례에 담긴 원인, 이유를 분석하는 등 가족 상담가로서의 요구되는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공하신 자료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게 제시하셨으며, 가족 갈등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시야를 넓혀주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 및 치료’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가장 먼저 수업 준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었는지, 앞으로 배울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본 후 가족 관련된 인터넷 기사와 사례들을 읽고 문제를 스스로 파악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상담가라면 내담자에게 어떤 상담을 진행할 것이며 어떤 해결책을 줄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가끔은 부모님과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가족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수업 준비로 수업 중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이 끝난 후 ‘학습 노트’를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했던 내용과 자세한 가족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을 적어 작은 내용 하나에도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족 상담 및 치료’ 과목을 수강하면서 변화된 점이 있다면 긍정적 사고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문 상담가처럼 매번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와 상대방이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질문과 해결 방안으로 이끌어 위로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상대방에게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는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왜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 하는가?’ 에 서운함을 느끼고, 때로는 분노를 느껴 강한 자기 주장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강 후에는 갈등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감정소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의견 조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재대학교 5대 핵심역량이 모두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 수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 중 가족 체계에서 볼 때 가족 중 한 구성원의 욕구, 행동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올바른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담가와 내담자가 서로 간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상황에 맞게 공감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어 감성 역량

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가로서 내담자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 특성을 파악하며 책임감이나 자아 존중감 향상 혹은 조언과 충고를 통해 사람의 성품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여 인성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올바른 상황 판단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성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²

다음 학기 ‘가족 상담 및 치료’를 수강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비록 가정교육과의 전공 교과목이지만, 다른 학과 학생들이 교양 교과목으로 수강하여도 어려움이 없고,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이라는 틀 안에 담긴 상처를 치료해주며 점차적 가족 갈등을 약화하여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로 함께 온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어 가는 일원이 될 수 있으니 ‘가족’과 ‘갈등’ 그리고 ‘치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누구나 수강해도 좋은 강의입니다.

패션소재, 알 듯 말 듯 헛갈리는 너

2020-2학기 장려상 / 가정교육과 박소민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가 의, 식, 주입니다. 패션소재와 의복관리 수업에서는 그 중 의생활에 대하여 배웁니다. 섬유패션산업을 시작으로 섬유, 직물, 가공, 신소재 등을 차례대로 배우는데, 저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섬유패션산업과 섬유 부분입니다. 패션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생산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패션의 정의부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생산되어 온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할인점이나 할인점에서는 어떻게 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팔 수 있을까?’ 라는 궁금함이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유통의 단축과 서비스 절감이라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친구에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섬유 부분에서는 그동안 옷을 입으면서 ‘보풀이 왜 생기는 걸까, 왜 줄어들어 드는 걸까, 구김이 왜 이렇게 잘 생기는 걸까?’ 등 섬유의 다양한 특성을 배운 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패션소재와 의복관리 수업의 좋았던 수업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를 통하여 신속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이 수업은 지금까지 Webex를 이용하여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업자료를 미리 공지해주시고 강의 시간에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필기합니다. Webex 내 채팅을 활용하여 교수님께서 질문하시면 학생들이 대답하며 그 전 수업의 내용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실시간 화상 강의로 할 수 있는 수업 활동 중 하나는 돌발퀴즈입니다. LMS에 다양한 퀴즈 형식으로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면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활동입니다. 시간 종료 후,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답을 확인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첨가해주시고, 헛갈리거나 잘못된 부분은 다시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북 활용입니다. 소재북은 페이지마다 다양한 섬유 소재와 특성, 원단명 등 각 소재를 만져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수업 시간에 구김과 탄성에 대해 배우면서 어떤 소재가 구김이 잘 생기는지, 잘 늘어나는지, 직접 만져보면서 수업을 들었더니 이해가 더 잘 되었습니다. 집에서 찾을 수 없는 소재들도 소재북에는 다양하게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활용도 높게 쓰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소재북을 활용하여 옷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옷들에 포함된 섬유들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연섬유인 면, 마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찾는 활동과 혼방한 옷을 찾는 활동 등을 수업 시간에 하였습니다. 가장 많았던 섬유는 면섬유였고, 마섬유 특유의 거친 촉감 때문에 저희 가족은 마섬유 옷은 입지 않아 찾을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care label은 옷마다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활동하면서, 가끔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 나오거나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은 care label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배웠던 면과 폴리에스터가 혼방된 제품이 가장 많다는 것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 전에 항상 소재북과 교재를 옆에 준비해두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낼 수 있어서 찾는 시간을 절약해 교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적기는 어려워, 저는 다 적지는 못하더라도 부가 설명을 적으면서 핵심 용어가 무엇인지 듣고 필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수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시는 문제를 메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설명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여러 가지 특성을 종합해서 서술해야겠죠?”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랑 핵심 용어를 적어두고, 복습할 때 예상 답안을 적으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필기하려고 하다 보니 알아보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공책에 옮겨 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패션에 크게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외관이 예쁜 옷이나 후기를 보고 많이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섬유 소재의 특성을 생각해가며, 옷을 고르는데 있어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쇼핑하면서 어느 순간 ‘이거는 면 100%, 이거는 폴리에스터 100%...’ 저도 모르게 소재를 하나씩 따져가며 저에게 맞는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외관만 중요시하던 제가 신중하게 care label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랍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그저 만지작거리다가 호기심에 살펴보는 care label과 섬유의 특성을 알고 보는 care label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수업은 5대 핵심역량 중 지성,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유패션산업을 시작으로 섬유, 직물, 가공 등을 학습하며 그 속의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성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패션소재와 의복관리는 내용을 이해했다면 실제로 수행해야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처럼 직접 찾고, 만져보는 활동을 통해서 수행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서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복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난다거나 섬유의 고유 성질이 사라지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모를 때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다가 결국 폐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이러한 문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으므로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길 줄 아는 ‘뿌리 깊은 나무’의 수업

2020-2학기 장려상 /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이현정

때는 2020년 9월 1일, 코로나 시대의 고통이 만연하는 와중에 하게 된 2020-2학기 수업 중 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수업이 있었다. 이 수업은 백낙천 교수님의 국어교과교육론 수업이었다. 눈으로 보면 다른 교과와 다를 바 없는 수업이지만 그 나름대로 고유한 의미가 있는 수업이었다. 이 수업이 나에게 의의를 준 까닭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수업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업 방법이었다.

먼저, 나는 그의 수업 내용 때문에 그의 국어교과교육론 교과를 추천한다. 직접적인 이유에 있어서 이 수업은 나에게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나의 내적 성찰인 것만은 아니다. 달리 말해서, 나는 개인적 발달과 더불어 다른 학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추천한다. 다소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는 나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서 좋았다. 처음 LMS 로 진행된 수업은 점차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다. 수업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일관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나는 수업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서 놀라웠고, 그 나름대로의 바뀌진 수업 방식을 수용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또한 그의 수업 방식은 지극히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나를 포함한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들의 의견들을 일일이 물어보면서 대면수업의 가능 여부를 구하려고 노력하셨고, 나는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민주적인 시민의 자질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엿한 21세기 민주시민으로서 한층 발돋움 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별다른 불평 없고, 오히려 고마움을 얻은 이 수업을 통해서 나는 내가 살아갈 21세기 사회의 예비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물론, 나는 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나의 생각과 사고를 반영해나갈지도 고려해나가면서 참여했던 것 같았다. 예를 들어, LMS에서 대면 수업의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공부)를 다하려고 노력한 것은 물론이고, 복습과 연습과 더불어 예비 교사의 역량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자세히 말해서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교사였다면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그가 보여준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들 수 있다. 그의 영화를 통해서 나는 혁신적인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는 교사는 더 이상 학교라는 공간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는 생각을 비우게 되었다. 영화에 등장한 존 키팅 교사의 대사에 집중하면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현실적인 교사인 그가 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화의 '그'를 통해서 상기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교사는 교탁을 지키면서 관습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21세기 교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내가 참여한 나의 활동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영어 교사인 그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현실적으로 그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수업에서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교사의 방법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서라도 학생에게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학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사는 결코 전통적인 사람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인 그(여기서는 백낙천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전에 지극히 교사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고정적인 사고를 가진 나의 사고를 바꾸게 도와주었다. 즉, 과거의 나는 상당히 이기적인 성격을 가져서 남에 대한 이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번 9월부터 시작한 이 수업을 통해서 나는 내적인 교양능력과 더불어 교사가 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즉, 나는 학교 수업 중에 학생을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끌어내는 수업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서 나는 좀 더 상대를 이해하고, 특히 학생에 대해서 생각해볼 줄 아는 사려심 깊은 예비 교사의 능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면, 나는 평소의 교과서 주입식 교육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일상에 지치고, 따분해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나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다가와서 상당히 깊은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았다. 또한 나는 교과마다 수업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수업은 교육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어떤 수업은 실제적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이 수업을 통해 배재대학교의 5대 핵심역량 중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나는 이 수업에서 핵심역량은 감성이다. 더불어 이번 수업을 끝내면서 나는 배재대학교의 교훈인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라는 말이 떠올랐다. 왜냐하면 이 수업을 듣기 전과 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수업을 듣기 전 나의 모습은 지극히 교과 중심적이고, 감성보다 이성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았다.

그러나 교직 수업으로 듣게 된 이 수업을 통해서 나는 과거보다 경험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고, 나와 상대 간의 교류를 통해 나타나는 감정, 즉 사회적 교류능력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진정한 국어교사이신 백낙천 교수님을 통해서 나는 평소에 보지 않았던 영화나 논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가질 수 없는 명언인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라는 정신에 대해서 상기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나는 의도치 않게 국어교과교육론 수업을 통해서 인격성숙과 더불어 상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았다. 즉, 나는 백낙천 교수님의 국어교과교육론 교과를 통해서 내 인생 처음으로 남을 배려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서 좋았다.

이상심리학

2020-2학기 장려상 / 심리상담학과 서유신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이상심리학이 매우 어려울 것 같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이런 책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고, 혹시 나도 이상행동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닐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저의 걱정과 고민이 180도 바뀌었고, 지금 이 이상심리로 인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교수님의 수업방식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언제나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이 수업에서 얻는 것이 많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항상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채팅을 서로 치면서 교수님께선 학생들 자신의 생각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채팅을 전부 읽으시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A 군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중에 내담자를 대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모습을 파악 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 존중을 해 주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의 수업은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학생 스스로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어가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쌍방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셨을 텐데, 정말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이론적인 부분을 혼자서 말씀하시고 학생들이 그것을 적는 것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수업에서 무엇을 얻어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녹화 강의 띄워놓고 너희가 그 이론을 따라 듣는 것보다 오늘 이 지금 시간에서 너희가 얼마나 이 과목에 대해 상담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고민해 보고,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 그런 것들을 지금 나이에 탐구해 보지 못한다면, 언제 이것을 고민해 보겠어. 나는 적어도 상담자라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 그래서 내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너희의 생각을 많이 묻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야. 더군다나 이 이상심리학 너희가 어렵다고 느끼고 실제로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전에서부터 너희의 고민이 없었다면, 탐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난다면 너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수업방식은 “학생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치 교수님께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해 주시면서, 수업 중에도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언제든지 남겨달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의 질문에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이런 방식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고민하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

업 중에 항상 직접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상담자가 무엇을 주의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실습의 상황을 마련하셔서 실제 우리가 상담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면서 수업에서 이론, 실습을 전부다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학생의 입장에서 정말 수업에서 미래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게 Webex 비대면 수업 방식인데도 이렇게나 잘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수님께서 학생의 생각을 마음껏 탐구할 수 있는 수업을 마련해 주신 덕에 어려울 것 같았던 다양한 이상 행동들(편집증, 조현병, 망상, 환청 등등)이 제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틀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수업 이전에 “너희가 이 이상심리학을 배울 때, 자신도 모르는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수업을 듣게 되면서,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회피하거나 모르는 척하려는 것도 이 자체도 선입견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일반인보다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있거나 차별받는다는 것을 더 잘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정말 상담자가 된다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구나, 남들을 도와주려 하는 사람이 특정한 행동 때문에 두려워하는구나. 이게 지금 발견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제 자신도 잘 몰랐던, 고쳐야 할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수업이 만약에 학생의 생각을 탐구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수업이었다면, 전 벌써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문제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네, 이런 건 이렇게 치료해서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그쳤지, 정작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는 살펴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작 사람을 망치는 건 ‘나’ 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지나쳤다면, 아마 미래에 가서 정말 많은 좌절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수업에서 제가 얼마나 사람에 대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담자를 한다는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견되었기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그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모르는 타인의 장점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니자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숨기면서 다니는데, 상담자가 될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다니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점이란 것을 알고 차라리 남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다니는 게 지금의 저에겐 100배 더 유익할 것이라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모습을 느끼게 되니까, 심리학을 더 공부해야겠다는 반성과 학습의 욕구가 같이 밀려들어오면서, 내가 이전까지 수업을 들어오면서 조금 가볍게 여겼던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전에 배웠던 부분을 다시 복습해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내면에 깊은 곳까지 다가오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 선입견이 강한지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본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내 삶을 더 이끌어주고 발전시키도록 좋은 내적 동기를 유발시켜준 이 수업으로 저는 아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저에게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원리도 지금 이 순간에선 변화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전의 배움을 다시 공부할 때, 더 새로운 시각으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아마 그때보다 더 매력적인 내용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것에 있어서도 1차원적으로 시험을 잘 봐야 하기 때문에 보다, 이 수업 내용이 진정 내가 미래에 돕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안에서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을 따라 직접적으로 수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상심리학을 들을 때, 항상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오늘 들을 내용의 이상행동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기” 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성격장애를 배운다면, 나는 성격장애의 개념에 대해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미리 노트에다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 봤습니다. 굳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제가 얼마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이상행동을 규명해 주시고,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수업이 다 끝나고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범하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치고자 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적으려 했습니다. 수업 전에 적어놓으면, 나의 솔직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고치기 쉽다고 판단을 하게 되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 동기” 에 대해 필기한 부분을 다시 따로 정리해서 상담기법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때론 교수님께 여쭙보거나 직접적인 치료방식을 모르겠다면, 어떤 매뉴얼대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 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지, 이상한 게 아님을 깨닫고자 구체적으로 명료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주도하신 부분을 따로 생각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게 되면서 정말 제 자신의 학습하는 방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한창 좋은 성적을 따라가기 위해 하는 학습이었고, 힘들다고도 느꼈는데 지금에서 하는 학습은 정말 내가 절벽에서있는 것 같은 긴급함도 느끼고,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지루하고 불안하기 보다, 내가 왜 공부할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단한 뿌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어려워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공부를 할 때, 하나라도 더 생각해보고 더 분석해보고 다방면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아 이 학자가 그렇다고 했구나. 이런 거가 상담에서 유용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왜 이 학자는 이렇게 생각했을까? 인간을 왜 이런 사람으로 규정했을까, 만약에 저 사람의 문제점을 내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일까? 또 다른 입장은 없을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힘든 것은 아마 자신의 문제점보다 사회적인 인식이지 않을까?’ 등의 고민을 해보면서 예전에는 같은 시간에도 더 많은 양을 했지만, 지금은 1장을 나가더라도 좀 더 고민해 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려 하고 단순히 이론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내 것” 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수업은 저의 상담자의 자질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크게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제 자신을 장점이라 생각하지만 남들에게 티를 내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조차도 이 늪에 빠져서 자신이 범하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 저의 부족한 인성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것은 배려도 있고, 관심도 있고, 공감도 있고, 이해도 있겠지만,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이 당사자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배려도 공감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공감해 준답시고 한 게 그 사람이 상처라면 그건 공감이 아닌 것처럼 저도 제가 갖춰야 할 인성이 이미 잘 갖춰져 있다고 착각한 게 깨지게 되고, 정말 “타인이 원하는 인성”으로 내가 배워나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런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오니까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올바른 지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또 다른 신념이 생겼습니다.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의도 해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도 알 수 없기에 반드시 지성이 함께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할 때, 배움에 있어서 게으르려 하지 말고, 귀찮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나의 인성에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 자문자답을 하면서 계속 이런 청년기의 수준을 발달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에 대해 열정을 가진 나!

2020-2학기 장려상 / 바이오·의생명공학과 김수진

나는 2020년 1학기 때 이종수 교수님의 “산업 미생물학” 전공과목을 이수한 후 이번 2학기 때는 “발효학” 전공과목을 이수하였다.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생각이었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산업 미생물학” 과 “발효학” 은 아주 많이 연계되는 과목이었다. 먼저 “산업 미생물학” 에서 다양한 미생물들을 접하여 학습한 후 “발효학” 에서는 다양한 미생물들을 이용하여 우리 실생활에 이로운 점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발효와 그 기작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발효’ 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지만,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내포되어있는 발효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었다. 나는 이 수업을 수강하여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아미노산 발효, 초산 발효, 유기산 발효를 배웠다. 이 배움들이 평소에 내가 먹고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 발효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특히 식품과 매우 관련된 분야의 강의이므로 매우 유익하고 배우는 내내 흥미로웠다. 그리고 나는 차후에 의약 분야에 대학원 진학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 이전에는 관심이 없던 식품 분야에도 관심이 생겼다. 또 하나는 평소에 잘 보지 않았던 식품 뒷면에 있는 성분들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 성분표시를 보면서 이 식품에는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있으며 그것이 어떤 발효를 통해 제조되었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겼다. 이것은 수업 시간에 배운 전공 지식을 가지고 혼자 생각해보면서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발효학” 은 ZOOM을 이용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었다. 보통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이 아닌 가정에서 이 수업을 들었을 것이다. 이와 달리 나는 평일에 학교 실험실을 나오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교수님 또한 빈 강의실에서 혼자 수업하는 것보다는 몇몇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하셨다.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 말고도 다른 몇몇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니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이전 학기보다 좋았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거나 궁금점이 생기면 바로 교수님 방에 직접 찾아가서 질문도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다. 간혹 학교에 나와서 듣지 못할 때는 배재콧 쪽지를 이용하여 질문하였다. 지금까지 이종수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내가 직접 보면서 다른 교수님들보다 수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제일 크게 느꼈던 점은 강의 계획서에 적혀있던 계획에 맞게 수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전공과목들은 교수님이 기존의 강의 계획서에 적혀있는 것처럼 수업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하셔서 항상 마음 구석에 아쉬움이 남았었다. 나는 이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종수 교수님 수업 진행이 너무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강의를 항상 시작하기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정리해주셨다. 그러면 이전 시간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이종수 교수님은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기 전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먼저 말씀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셨다. 특히 나는 이 수업 진행 방식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만약에 전공 공부할 때 배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무엇이 핵심 내용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교수님이 핵심 키워드를 수업하시기 전에 먼저 잡아주시면 수업을 듣는 과정과 나중에 혼자서 복습하는 과정이 전보다는 수월해질 수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책에 열심히 필기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1차 복습을 하고 나중에 Lms에 올려주시는 녹화를 다시 들으면서 2차 복습하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복습한 이유는 이종수 교수님이 매번 이 전공 지식을 나중에 취업하거나 대학원 진학 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습이 중요하시다고 매번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나도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복습하였다. 그리고 이종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배운 전공과 관련된 논문들을 발췌해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는 몇몇 시간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그 시간이 너무나도 유익하였다. 여러 타 대학에서 나와 같은 전공 학과들은 1~2주에 한 번씩 수업 시간에 논문을 해석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다. 나는 이러한 수업 방식이 내심 부러웠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었다. 이 중에서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몇 개의 논문 외에도 너무나 궁금한 것이 있어 내가 직접 논문을 찾아본 후 그 영어 논문 전체를 하나하나 해석해보는 시간도 가졌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보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허비되어 조금 힘들었다. 하지만 해석을 다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 말로 할 수 없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느껴졌다. 그래도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우리 대학의 5대 핵심역량 중 지성과 수행 역량을 얻었다. 수행 역량 중에서도 나는 자기 주도적 수행능력과 도전적, 정보 활용 능력을 지성 역량 중에서는 이해력, 통합적 사고력, 분석력을 얻었다. 자기 주도적 수행능력과 이해력, 통합적 사고력은 스스로 복습하는 과정들을 통해 많이 얻었고 도전과 분석력은 수업 시간에 접했던 영어 논문 이외에도 다른 논문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도전력과 그 논문을 스스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통해 주어진 글에 대한 분석력과 이해력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공부할 때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한 것 외에도 꼼꼼히 분석하고 파고들려는 성격을 가져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남들보다 넘쳐 학구열이 높은 사람이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러한 점 때문에 이종수 교수님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발효학” 강의가 더욱 기다려지지 않았나 싶다.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열정이 넘치는 스승 밑에는 그 스승을 보고 배운 제자 또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이다. 이렇게 좋으신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있다는 존재만으로 나는 너무 든든하다. 한 학기 동안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수업인 “발효학”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글을 빌려 이종수 교수님께 말씀 전해드리고 싶다.

수업 속에서 찾은, 삶을 마주하는 자세

2020-2학기 장려상 / 유아교육과 김하늘

‘교육철학 및 교육사’ 어쩌면 교육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가장 어울릴만한 이름의 수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업의 제목부터 교육과 학생임을 나타내는 이 과목은 교직 과목중에 하나로 미래의 교사가 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수업이다. 나의 자율적인 선택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했던 수업이기에 처음에는 별다른 큰 기대 없이 열심히 들어야겠다는 의무감 하나로 수업에 임했다.

하지만 의무감 하나로 시작했던 수업이 지금은 나에게 가장 많은 깨달음을 준 수업으로 자리 잡았다.

‘교육철학 및 교육사’ 수업은 교육의 역사 제도를 통사적으로 살펴보고, 교육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공부함으로써 교육의 향상성과 변화성에 대해 고찰하는 수업이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동서양 교육사상과 현대 교육철학 사조를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의 교육사 전개 과정 또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을 이해하는 안목을 높이고 교육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며 좋은 교사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고대사회부터 종교개혁기를 거쳐 현대 교육철학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교육철학 및 사상들을 살펴보며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교육과 앞으로 내가 해나갈 교육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학기도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철학 및 교육사’ 수업 역시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수님께서 수업자료를 공유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등, 수업 방법은 타 강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딱 두가지, 내가 이 수업을 추천하게 된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

첫 번째, 수업시간 화면과 목소리를 켜고 학생들과 최대한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점이다.

강명숙 교수님의 수업은 교수님께서도 카메라를 켜시며 학생과 교수 모두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비대면강의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편안한 환경 속에서의 늘어진 수업 참여 태도라고 생각한다. 수업 시작 전 화면과 목소리를 켜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출석체크를 하는 수업방식은 나의 수업참여 태도 또한 변화시켜주었다. 수업 시작 10분전에 눈을떠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잠옷 차림으로 수업에 참여했던 나는, 적어도 수업 40분전에 일어나서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에 옷도 잠옷이 아닌 평상시 생활복으로 환복하며 수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갔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면 수업시 학교에 등교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아낀만큼, 원래 그 시간의 반만 투자해도 충분할 시간이었기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나태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는지 반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수업 준비를하고 수업을 들으니, 놀랍게도 집중력과 참여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짐을 느꼈다. 서로 카메라를 켜고 소통을하는 수업이다 보니 대면 수업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업내용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게다가 자연스레 자세도 바르게 교정되면서 제대로 ‘학습’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속에서 나오는 뿌듯함과 성취감은 그 다음 수업에도, 더 나아가 다른 강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 간단한 연습과제와 복습과제를 내고 수업시간에 이에 대해 발표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따로 가진다.

수업 시간은 한정적이기에 책의 내용을 설명하며 진도를 나가는 것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며 소통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힘든일이다. 하지만 강명숙 교수님께서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수업 전 일주일의 시간동안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파일로 올려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수업의 핵심 내용들을 간단히 조사해오는 과제를 내주셨다. 덕분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게 수월하였고, 이미 한번 공부하고 조사해간 내용이기에 습득력도 높아져 수업 진도도 빠르게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여유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에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출한 과제들의 피드백, 학생들의 의견 반영 등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리 달갑지 않은 수업 방식이었다.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강의를 듣다보니 카메라를 켜는 것이 불편했고, 매주 주어지는 과제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러한 수업방식 덕분에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게 아닐까 싶다.

‘과제를 낸 의도는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지 경쟁과 채점을 위해 내준게 아니에요’ .

소통식 수업과 연습과제에 부담을 느끼던 내 마음가짐을 변화시켜준 한마디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고, 그다지 특별한 말처럼 느껴지지 않겠지만 나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와준 말이다. 지금까지 ‘제출한다’, ‘감점당하지 않는다’ 라는 목적의식 아래에 과제를 진행해왔기에,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출’ 을 목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수업을 깊이 이해’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함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잔잔했던 수면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듯, 나에게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 다음부터 연습 강의를 듣고 과제를 진행할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닌, 다음 강의를 보다 오래 기억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역량강화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미리 내주신 연습강의와 연습과제도, 많은 양을 채워야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음 시간 수업을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볍게 진행을 하니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고, 연습 과제와 강의에 보다 집중하며 더 많은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는 다음 수업에서의 집중력도 높여주었고, 교수님과 소통하는 측면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수업 참여도의 시너지를 높여주었다.

교수님과 소통할 때 막히는 부분이 점차 사라져가다보니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가고 비대

면 수업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소통과 참여도의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가는듯 했다. 나는 그동안 ‘교육철학 및 교육사’ 수업을 통해 우리 대학의 5대 핵심역량을 착실히 키워나갔다.

예습과제를 통해 수업을 더 깊게 이해하고 교수님과 소통하면서 수업에 대한 열정을 키우게 되었다. 이는 스스로 더 공부하고자하는 탐구심으로 이어져 핵심역량 중 하나인 ‘**자립지성**’을 길러주었다.

또한 예습과제를 다른 학우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감소통**’ 능력 또한 키울 수 있었다.

게다가 과제 안에는 단순히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도 요구했었기에, 매주 과제를 해나가며 어느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설득력있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감성**’을 기를 수 있었고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꾸어 나가며 ‘**행동인성**’을,

더 나아가 예습과제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사 과목 이외에도 스스로 예습과제들을 만들어 적용해나가는 등의 ‘**도전수행**’ 정신도 기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함양하면서 다른 교과목 뿐만 아니라 대회, 시험,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능동적이고 탐구적인 자세를 기를 수 있었다.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며 교수님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주도적 수행능력과 공감각적 수용능력을 많이 키웠다고 생각한다. 이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어떤 일을 마주하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될거라 믿는다.

COVID-19 속 지역사회

2020-2학기 장려상 / 실버보건학과 배다운

(수강 신청이유) 지역사회복지와 실천의 과목이 실습과목으로 이번 학기 처음 개설이 되었는데 신청을 하고 싶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강의계획서를 봤을 때, ‘지역사회 문제 및 이슈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액션 러닝 기반의 실무형 체험교육 교과목’이라는 말을 보고 1학년 때 했던 자원봉사론 과목이 생각났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실습과목이었는데 이 과목으로 하나의 행사를 복지관에서 총괄을 맡으며 많은 점을 배웠던 저에게는 이 과목 또한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발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강을 하게 되고 COVID-19 또한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강의가 전면 비대면이 실시되어 이 실습과목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수업 방법) 하지만 교수님은 이러한 우려를 깨주셨습니다. 매번 실시간 강의를 하면서 이 과목을 배움에 따라 저희가 얻게 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시고 밖에 나가지 않고 독거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텔레 케어를 집에서 진행 할 수 있도록 복지관과 연결해 주시고, 팀 매칭을 통해 팀 프로젝트 또한 직접 WEBEX 방을 열어주셔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COVID-19 가 1단계로 떨어지고 방역수칙을 정해 독거노인분들 댁에 방문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도 조별 발표를 해보면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쌍방향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주 차별로 학생들에게 질문하며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셨습니다.

(수업 참여) 이 강의는 지역사회에 계신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현장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 실습과목인 만큼 실습 경험과 봉사 경험이 많은 선배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학번 선배 3명과 19학번 동기들 4명이 팀을 이뤄서 이 교과목을 주제로 매 주차 별로 활동을 기록할 수 있고 나중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비교과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유등노인복지관에서 도마동에 계신 독거노인분들과 학생을 1:2로 매칭을 시켜주셨고 방문을 하기 전 10월에는 텔레케어를 통해 주 1회씩 전화를 드려 안부를 묻고, 어르신과의 일상 대화를 통해 라포형성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사이에는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팀 매칭을 통해 10월 말부터 11월 초에는 직접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교수님에게 발표해 피드백을 받고 정해진 예산 이내에 준비물을 사면서 독거노인분에게 방문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11월 03일 첫 방문을 하였고 어르신을 만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이라 걱정을 했지만 따뜻한 어르신의 모습에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0일, 첫

프로그램인 **빼빼로데이**를 맞이해 가래떡 **빼빼로**를 만들어서 먹고 화투 퍼즐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맞춰보았는데 어르신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모습에서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11월 17일, 방문 3차시에는 토피어리를 직접 모양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기 어려워서 만들면서 당황했지만, 어르신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저희가 못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며 열심히 참여해주신 덕분에 프로그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11월 24일, COVID-19로 인해 건강에 대해 걱정이 많은 지금 거품 비누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위생 관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스크 목걸이도 직접 색을 골라 고리를 걸면서 만들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마스크 목걸이를 만들어서 마스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투 퍼즐을 통해 치매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어르신께서 직접 맞출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매 주 차별로 저희가 계획한 프로그램을 하고 텔레 케어를 어르신의 특이사항과 매 활동 진행 상황을 기록해두기 위해 매 회 일지에 작성하였고, 많은 사진을 찍어서 포토 북을 제작해 어르신에게 마지막 활동에 선물로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내용) 이 수업을 배우면서 저는 지역사회에 이렇게 많은 독거노인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노인이라고 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프로그램을 하기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전부 다 편견임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텔레 케어를 해보고 직접 독거노인 댁에 방문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해 이론적인 수업만 하다 보니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수업을 통해 현장에 방문하고 그 현장에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미래에 있어서 저 자신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자부합니다.

(학생의 변화) 독거노인 댁에 방문하면서 어르신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르신께서 자신의 손녀가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고맙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막상 친할머니댁에는 자주 방문을 하지 않고, 전화 또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할머니 또한 독거노인이신데 제가 맡은 어르신에게만 활동하고 있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첫 방문을 하고 할머니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오랜만이라며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너무 죄송했고 앞으로는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평생 깨닫지 못하고 후회했을 텐데 저의 어리석은 행동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핵심역량) 이 수업은 우리 대학의 5대 핵심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원들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을 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보고, 실행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피드백을 통해 지성 역량과 수행역량, 감성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분과의 라포형성이 잘되기까지엔 총 11차시 텔레 케어를 통해 일상애기와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소통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분이 나와 상황이 다르더라도 그분 자체를 존중해드리고 나의 입장이 아닌 독거노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인성 역량 또한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추천이유) 선배들의 수강 후기가 없는 새로운 전공과목이 개설되어서 저는 추천을 받지 못하고 강의를 들었지만 제가 선배가 되고 다음에 이 강의를 듣게 될 후배들에게 이 과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 과목을 배우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현대에 독거노인의 문제를 몸으로 느껴볼 수 있었으며 평소 노인과 청

년들이 이야기해볼 기회가 없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세대 차이를 허물고 독거노인의 입장을 알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와의 팀 매칭을 통해 선후배끼리 같은 강의를 듣고 서로 의지하면서 친해질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제작하고 발표를 통해 교수님과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고칠 수 있고, 필요한 준비물도 직접 사면서 프로그램의 제작과정과 실행에 대해서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복지와 실천 강의를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포토샵 지식 없어도 들을 수 있는 눈높이 맞춤 수업

2020-2학기 장려상 / 의류패션학과 피채림

포토샵(Photoshop)은 어도비(Adobe)에서 만든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대중적이고 친근하여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포토샵 하면 어딘가 전문적인 느낌이 강하다. 아마 자격증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정작 배워보고는 싶지만, 막상 어려울 거 같아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은 거 같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 걱정은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싶다. 이 수업의 최대 장점은 포토샵의 기초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오히려 ‘포토샵 입문·기초’와 같은 강의명이었다면 아마 교양 최대 인기 과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사진 합성을 배우는 시간이 많은 것 같다. 포토샵의 기능을 이해하고 다양한 기능을 직접 활용하여 이미지 보정과 편집, 디자인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D 프로그램 중 최강의 편집 기능을 다양하게 갖춘 포토샵 CS를 이용한 사진 수정 및 보정 작업, 이미지 합성 및 디자인 분야에서의 활용, 포토샵에 내장된 프로그램인 이미지레디를 활용한 웹디자인 제작 및 애니메이션 제작뿐만 아니라, 포스터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포토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학습 다양한 이미지를 편집하고 애니메이션 및 3D 편집과 같은 다양한 기술로 연계 개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의 융합적이며 도전적 추진력에 적합하다. 핵심 기능 마스터를 위한 개념 파악-기능 파악-기능 활용 순으로 학습효과를 높인다. 예제를 통해 여러 반복 학습으로 다양한 툴과 기능을 익힌다. 사진 편집, 광고, 편집 디자인, 웹디자인, UI 등에서 포토샵을 응용하고 활용한다.

간단한 작업에서부터 응용 작업까지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수월한 편이다. 교수님께서 강의 직후, 질문사항 여부를 매번 물어봐 주신다.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컴퓨터에 포토샵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들을 수 있어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포토샵도 많은 버전을 가지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버전을 사용하면 된다. 영문판을 사용 중이라면 교수님께서 영어로 된 언어로 직접 설명해주신다. 만약 프로그램이 있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 수업을 직접 들을 수 있는데, 이 점에서는 교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나는 이 부분이 정말 추천해 주고 싶은 이유 중 하나다. 또한, 학생들이 작업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만일 수업 내용을 놓쳤다면 교수님께서 반복적인 보충 설명으로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과제는 수업에서 다른 방식

을 활용하여 응용해보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오랫동안 기억에 저장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시험공부도 하게 되므로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 강의 덕분에 ‘동영상 편집기초’ 라는 교수님의 다른 수업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다. 수업 방식이 원활하고 흥미가 생겨서 그런지 배우는 즐거움이라는 말이 지금 상황에 맞아 공감된다. 나는 브이로그나 영상 편집을 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포토샵과 같은 계열인 [프리미어 프로]는 말로 들은 적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접해본 적은 없다. 강유경 교수님의 설명으로 첫 단추를 끼우면 오히려 잘 된 걸지도 모르겠다. 현재 포토샵 수업을 듣는 초보 학생들에게도 맞춤으로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시고, 학생들도 이해를 잘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포토샵을 중고등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어 기본적인 툴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신청했던 계기가 있었지만, 포토샵에는 워낙 버전이 많아 어떤 버전을 사용할까 하다가 가장 최신 버전으로 구독했다. 해당 버전에는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버전 중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운 기능도 추가된 것도 볼 수 있었다. 여러 버전을 사용해 보고 나에게 맞는 포토샵의 버전이 어떤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만약 포토샵을 처음 접해 어떤 버전을 쓸지 고민이라면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배려심 많은 교수님 ‘

중간 강의 평가에서도 적었던 코멘트다. 교수님께서 수업이 시작하는 시간보다 10분의 여유 시간이 지난 후, 수업을 시작하신다. 학생들이 Webex에 들어오는 시간 때문이다. 다른 수업은 정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0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더 내어 주셨다. 아마 대부분 학생이 교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눈치채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정시에 들어와 대기하는 편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제야 교수님께서 출석을 부르고 수업이 시작된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편이다. 나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편인데 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종종 화면에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질문해서 바로 도와주러 다니신다. 지난번에는 교수님의 강의 평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평가가 교수님께서 친절하다는 내용이 많았다. 딱 그에 걸맞은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주변 친구들에게 소개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친구들은 내 말을 듣고 다음 학기에는 수강 신청을 하겠다며 관심을 보였다. 나는 의류학과 전공 특성상 포토샵을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업을 들었는데, 우리 학과 사람들은 나 포함해서 3명 정도가 들었다. 예상외였다. 심지어 모두가 다른 학번이었다. 아마도 포토샵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내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했을 때에도 대부분은 포토샵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내 말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겨울 방학에는 포토샵 자격증 공부를 할 예정이다. 2급 자격증은 고등학교 때 취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급 자격증을 준비하려 한다. 포토샵을 한동안 손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싶어 수업을 신청한 계기도 있었다. 그 결과, 수업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와 들었을 때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보는다면 훨씬 자연스럽게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과제가 아니더라도 내 개인적인 작업물을 만들어 보았다.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작업물을 보며 신기해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공유했더니 반응이 좋았다. 괜스레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더 열심히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포토샵을 다룰 줄 알면 좋은 점은 무수히 많다. 눈에 보이는 모든 이미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포토샵을 이용하면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수정하거나 카메라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효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새로운 느낌의 이미지를 재탄생시킬 수도 있다. 컴퓨터 그래픽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분야로 실존하지 않은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포토샵은 그래픽 분야 디자이너들에게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다. 메시지를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포토샵을 활용하여 문자의 질감과 그림자를 만들 수 있으며, 손글씨 느낌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유명 영화나 온라인 게임을 보면 장대한 스케일의 배경이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합성 작업으로 포토샵을 이용해 작업한 것이다.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모바일 화면의 앱 디자인을 할 때도 포토샵을 이용한다. 웹디자이너들은 웹 요소의 이미지를 비트맵 방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보다 포토샵을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시키려는 방법으로 인포그래픽을 많이 사용한다. 예전에는 벡터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작업했지만, 최근에는 포토샵의 벡터 기능이 강화되면서 간단한 이미지 작업이나 패스 작업은 포토샵을 많이 이용한다. 광고 디자인은 전달해야 하는 목적을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것은 물론, 내용도 빠르게 전달해야 한다. 포토샵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포토샵에 입문하고 싶고,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쌓고 싶다면 졸업하기 전에는 강유경 교수님의 수업을 꼭 들어보길 권한다. 지루할 틈이 없는 수업일 것이다. 포토샵은 디자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더 이상 디자이너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입문자라도 쉽고 재미있게 포토샵과 친해질 수 있다. 디자인 분야의 많은 전문가가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으며, 취미 사용자들도 SNS를 이용하면서 포토샵을 자주 이용한다. 이제 포토샵은 모두의 필수 프로그램이 되었다.

‘비대면’ 이지만 괜찮아

2020-2학기 장려상 / 공무원법학과 박수빈

제가 추천하는 우수 강의는 바로 백정웅 교수님이 가르치는 ‘보험해상법’이며, 공무원법학과의 전공 선택 과목에 해당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강의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보험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며,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소 보험이 우리와 같은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에 맺는 계약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부모님 아래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험을 들 필요도 없고 그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 계속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독립을 하게 되거나 배우자가 생길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해 운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중에 발생하게 될 사고를 대비하여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험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저에게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이 강의는 ‘비대면’으로 Webex를 이용한 쌍방향 실시간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매학기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학기에도 대면 수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때에는 실시간이 아닌 녹화강의로 하여 매주 교수님이 동영상 올려주시면 기간과 상관없이 종강 전까지만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열심히 매주 잘 듣다가 점점 갈수록 미루게 되어 나중에 한꺼번에 듣게 되는 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녹화강의는 교수님의 일방적인 강의라서 듣다가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바로 질문하거나 해결하지 못하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Webex를 이용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먼저 특정 요일 특정 시간을 맞추어 실시간으로 듣다보니 밀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늦게 듣더라도 기간 안에만 들으면 출석이 모두 인정되었는데, 이번에는 수업 중에 교수님이 한명씩 출석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험이나 과제 등과 같은 요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으로 얻어가는 점수가 출석인 터라 더 신경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날의 수업을 듣지 못하면 따로 강의영상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게 됩니다. 매주 다른 내용이 아닌 주로 이어지는 내용을 수업하는 강의의 특성상 한 번 놓치면 다음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는 시간만큼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백정웅 교수님께서서는 수업시간에 Webex 안에 있는 채팅창을 항상 사용하십니다. 이로 인해 비록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채팅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학생들과

의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하는 도중 중간 중간에 학생들에게 이해가 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었다면 채팅창에 숫자 1을 치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숫자 2를 치라고 하여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파악합니다. 위의 채팅 내용과 헛갈리지 않도록 가와 나, A와 B 같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번갈아서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이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학생이나 대답하는 학생이 없으면, 그 부분을 다시 천천히 설명해 주십니다. 가끔은 단답형의 질문을 하시는데 이 때 대답을 하여 답이 맞으면 교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등의 큰 반응을 보여주어 학생인 저는 기분이 좋아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을 받는 느낌이 드는 동시에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 수업방식에 있어서 좋은 점은 매 시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해준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도 강의평가 때 이 방법이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수업을 듣고 주말이 지나면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까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흥미로운 예시나 관련 이야기도 해주어 지루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보험해상법의 경우에는 PPT의 내용이 유출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자료를 따로 LMS에 올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들을 때마다 따로 녹화를 하는 편입니다. 처음엔 PPT 내용만 사진으로 찍거나 화면을 캡처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교수님께서 중간에 하시는 추가적인 설명이나 예시 등을 필기하지 못해 나중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PPT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그 작업을 하다 보니 설명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친구들과 공유하다보니 녹화기능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 수업시간마다 녹화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월요일 수업 녹화는 화요일 날 듣고, 수요일 수업 녹화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녹화한 강의를 보면서 노트에 피피티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녹화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부가 설명을 필기하며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때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따로 메모해두었다가 다음 수업 시간에 복습할 때 혹은 개인적으로 배재록이나 문자를 통해 교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수업은 저로 하여금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먼저, 오전 수업이다 보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의 경우 평소 잠이 많고 밤늦게 자서 방학이나 1학기 때는 점심 먹을 즈음이나 오후에 서서히 일어났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맞이하며 부지런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시간을 알차게 쓰는 저의 모습을 보면 괜히 뿌듯함이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마치 학교에서 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것처럼 더 집중하고 열심히 듣게 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1학기 때 했던 비대면(온라인) 수업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졸거나 딴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수업방식은 교수님이 중간에 질문을 하여서 그에 대한 대답도 해야 하고, 언제 출석을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잘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

렵게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5대 핵심역량은 지성, 인성, 소통, 감성, 수행입니다.

먼저, 지식을 얻게 됨으로써 지성 역량이 향상되었고, 과제 등으로 수행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학생들 간에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인성 역량도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webex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어 채팅창이나 마이크를 통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소통 역량이 향상되었고, 교수님께서 강의 중 들어주시는 예시나 관련 이야기를 들으며 감성 역량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통해 저는 여러 가지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강의가 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저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있으며,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보험해상법’이라는 강의는 전공과목이기 때문에 비록 다른 학과 학생들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우리학과인 공무원법학과를 선택하여 듣지 않는 한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해당 학과의 학생들은 이 과목이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으로 이 강의를 수강하여 한 번 들어보는 것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물론이고, 졸업 후에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갖거나 공무원이 되려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첫 토론 수업

2020-2학기 장려상 / 심리상담학과 최세연

뉴스에서는 현역 고3들이, 소상공인들이, 의료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전국의 대학생들 또한 만만치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일명 코로나학번이라고 불리는 20학번 대학생이다. 첫 대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겪고 있는 학생으로서 우여곡절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중 수강신청은 나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1학기 수업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정해졌을 때 내 시간표는 학과에서 지정해준대로 전공과 필수교양으로만 짜여졌다. 수강신청이 없다는 것은 좋아해야 할 일만은 아니다. 치열한 수강신청이 없는 대신 내가 원하는 수업을, 원하는 시간에 들을 자유를 잃었다. 그렇게 짜여진 1학기를 보낸 후 2학기 수강신청을 직접 하게되었다. 아무리 전공과 필수교양 수업으로 바빠도 정말 주옥같은 교양 수업 하나 찾아내는 것이 내 나름의 대학교 로망이었다. 수강신청날이 되기전 1학년이 입수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입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발견한 수업이 영어읽기2이다. 담당교수님은 1학기때 내 필수교양 수업을 해주신 외국인 교수님이였다. 사실 1학기 좋은수업 추천에세이에도 소개한 교수님이시다. 정말 가르치는것에서 열정이 보이고 비대면의 단점을 커버할 다양한 수업방법을 강구하시는 모습이 좋게 기억에 남았던 교수님이시다. 리마니치 교수님의 좋은 수업내용은 다양한 형태의 영미문화권 작품을 원서로 읽고 토론을 나누는 것이다. 수필, 시, 소설, 단편소설, 노래, 심지어 코믹(대문자로 쓰여있고 거의 2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영문코믹북을 읽는 것은 나에게 정말 큰 도전이었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매 수업마다 1가지씩 주제로 삼는 수업이다. 나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특징인 토론을 꺼려하는 소극적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도전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어가겠다는 생각에서 참여했다. 리마니치 교수님은 원서를 거의 접해보지 않았을 학부생들을 위해 정말 좋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 하셨는데 이를 소개하고 싶다. 첫째, 외국인 교수님과의 Only English 토론방법이다. 작품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배경은 알고 있는지, 등장인물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작가를 알고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영어로 학생들에게 하시는데 처음엔 정말 진땀을 흘렸다. 분명 열심히 읽었고 배경분석을 통해 어느정도 작품에대해 이해를 했음에도 영어로 물어오는 질문에 영어로 내 생각을 답하는 과정은 곤욕스러웠다. 그래도 Sorry? Can I hear once again?을 반복하는 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천천히 풀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교수님의 태도가 기억에 남는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여태까지의 영어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는 나의 듣기, 독해, 말하기, 발표 능력이 골고루 함양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예습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매주 토론주제가 바뀌며 적지않은 분량에 원서로 이루어져 있기에 반드시 예습을 해와야 1시간30분이라는 짧은 수업시간에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볼 수 있다. 사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주입시켜준 지식을 잘 정리해 이를 복기시키는 것은 쉬워도 예습이라는 것은 매우 학생 주도적 학습이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과정을 매주 반복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가장 큰 실력 향상을 얻어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나 혼자 수업 전, 혼자 원서를 읽으며 모르는 단어도 찾고, 작가의 의도도 파악하고, 이야기의 교훈과 결말을 파악하며 학습능률을 높일 수 있었다. 셋째, 소그룹 분화 방법이다. 수업에 사용되는 Webex Meet 어플에는 일정시간 학생들을 소그룹 나눌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사용법을 배우기 어렵고 관리가 까다로워 많은 교수님들이 쓰시지 않지만 리마니치 교수님은 매 수업마다 학생들을 매번 다른 사람과 그룹이 되어 학생 주도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이러한 소그룹 미션은 교수님이 던져주시는 질문에 답하며 어느정도 전체 스토리 파악이 완료된 후에 진행되기에 많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인상적인 수업 방법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수님의 열정에 힘입어 나 또한 이 수업에 많은 노력을 들였다. 전체 원문을 꼭 1번이상 내 손으로 직접 써보고 모르는 단어를 각주로 다는 등 예습은 반드시 해갔다. 또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 원문, 내가 조사한 작품배경, 내가 모르는 단어 해석한 종이. 이렇게 3파트로 나누어 항상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나뉘었을 때에도 사용한 학습방법이 있다. 매번 모르는 사람과 과제를 해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기에 나는 Webex Meet의 화면공유기능을 활용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내 화면에서 공유해 다같이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방법을 구상했다. 이 토론 수업을 통해 ‘교양’의 참 의미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공지식외 인간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쌓아야할 지혜를 얻게된 유의미한 수업이었다. 고등학생때 토론을 어려워했던 모습이 즐겁게 조금 어설프더라도 자신감있게 영어로 내 생각과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바뀌었다. 또한 쉽고 넓은 길이 아닐것임이 뻔히 보여도, 장기적으로 나에게 득이 될 것을 알고 도전 할 수 있는 도전수행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영어 토론 수업을 통해 내가 얻은 핵심역량은 자립지성이다. 많은 교사들이 ‘자기주도적’, ‘학생 주체적’ 수업을 하고자 노력하지만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나는 외국인 교수님과 함께 문학작품을 주제로 토론하기위해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가 주체적으로 조사, 해석, 준비하고 지성을 쌓는 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한번의 경험을 통해 나는 앞으로 토론을 무서워하지 않을뿐더러, 주체적인 학습을 하는 대학생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실시간 화상 수업,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2020-2학기 장려상 / 항공운항과 송은영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들은 지 두 학기 째, 이제는 온라인 수업에 적응이 되어 대면 수업보다 더 편하게 느껴진다. 2학기에 수강했던 여러 수업들 중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특히 더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 있다. 1학기에 이어 두 번째 수강한 ‘항공 인터뷰 영어2’이다.

‘항공 인터뷰 영어2’는 승무원 채용 시 있을 영어 면접에 준비하기 위한 수업이다. 화, 금,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는 수업으로 금요일에는 주제에 따른 영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것을 배우고, 나만의 답변을 작성해 화요일에는 면접처럼 답변을 발표한다. 무엇보다 이 수업이 실시간으로 진행된 것이 좋았던 부분은 화요일에 하는 면접 형식의 답변 발표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승무원 채용 시 면접은 모두 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우리의 수업처럼 실시간 화상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때문에 본인의 최상의 이미지를 노출하기 위해 항공사 면접 전에 각도, 빛, 카메라 등을 수차례 비교해 보아야한다. 나는 이 수업이 기회라고 생각했고 매주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각도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내 이미지가 가장 잘 비춰지는 곳을 찾았게 되었다. 또한, 동기들의 답변을 차례로 들으며 억양, 발음 등 나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었고, 취업을 위해 내가 더 준비해야 할 점도 찾을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학생을 위해 답변을 작성할 때 더 편한 방법, 발음하기 더 쉬운 어휘를 사용하라며 조언해주셨고 수업시간을 꼭 채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교수님은 외국 항공사 승무원 출신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외국 항공사의 분위기와 영어 면접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다. 때문에 교수님의 수업이 더 소중했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연휴 같은 때에 교수님은 과제로 답변 발표를 녹화해 제출하게 하시고 후에는 녹화 본으로 학생 개인마다 피드백을 해주시며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교수님이다. 학생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과에서 매우 존경받는 교수님 중 한분이기도 하다.

사실 나는 내 성격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1학기에 ‘항공 인터뷰 영어1’을 수강한 후 2를 신청하기에는 조금은 망설여졌다.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성격상 무언가를 완벽히 해내는 것을 좋아해 1학기 때는 답변을 완벽히 외워 수업에 참여했는데, 그러다보면 긴장감에 휩싸일 때는 래퍼처럼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항상 내 발표 후엔 교수님께서 말을 천천히 하고 억양에 신경 쓰라는 피드백을 해주셨다. 하지만 한 학기 수업을 듣다가 적응이 된 건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나의 답변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물론 그러기까지 나는 많은 노력을 했다.

기본 4개의 답변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은 물론 화면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보기 위해 노트북 카메라를 켜두고 실제 수업처럼 발표를 연습했다. 덕분에 여유로운 표정을 갖게

되었고, 카메라에 익숙해지다 보니 수업에서도 내 모습이 동기들에게 비춰지는 것에 당당함을 가지게 되었다. 1학기 수업 때 받았던 피드백도 2학기에 들어서는 현저히 줄었고 심지어는 역량과 플로우에 대한 칭찬도 따라 붙었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온라인 수업에 적응되어 많이 여유로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항공 인터뷰 영어2’ 수업은 수업 시간에만 그치지 않았다. 교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Star-Role Management Tutor-Tutee’ 프로그램에 참여해 1학년 후배와 함께 튜터 활동을 진행하였다. 내가 후배에게 가르쳐주고 도움이 될 부분이 영어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다. 또한, 현재 후배가 수업을 듣고 있는 토익보다는 남보다 앞서나가 면접을 준비하면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이 시기에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겠다 싶어 영어면접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내가 수업시간에 배우며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셨던 면접 질문들만 골라 후배에게 내주어 스스로 답변을 작성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1학기의 것처럼 답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헤맸지만, 질문에 따른 필수 작성 내용을 알려주고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흐름에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해 주었다. 처음에는 헤맸지만 매주 답변을 작성하고 수정하다보니 5주차가 지날 때 즈음엔 내가 손봐줄 부분 없이 답변을 작성해왔다. 이 활동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빠르게 적응하는 후배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학교생활도 잘 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학기를 온라인으로 마무리하며 이 에세이를 쓰는 지금 많은 것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처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지난 학기에는 한 학기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고 대면 강의가 조금씩 밀려 조금 있으면 학교 가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온라인 수업에는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고 녹화강의를 듣다보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2학기도 온라인 수업으로 확정이 나고 1학기의 나의 되돌아보니 발전한 부분을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무기력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사의 채용은 꿈도 꿀 수 없어 목표가 사라졌다는 것이 핑계라면 핑계였다. 2학기를 시작하며 이번 학기에는 나를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 수업을 들으며 면접 대비, 멘토링 활동, 토익 성적 향상, 영어 학원 강사 등 영어에 관한 활동을 해낼 수 있었다. 가끔은 전 학기에 비해 너무 바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확실히 전 학기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었고 목표 한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는 현재, 다음 학기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이 진행될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며 다음 학기에는 이번 학기보다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다음 학기 나의 목표를 세우며 마무리하고 싶다.

우선 이번 학기 영어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에 멈추지 않고 원어민 교수님의 영어 수업을 수강해 영어 실력을 더욱 향상 시키고 토익 900점 이상까지도 취득하고 싶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미뤄왔던 중국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중국어 교양을 신청해 수강하여 HSK 5급을 취득할 것이다. 현재로서 항공사로는 취직은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한 번에 터질 항공 계열 취업을 대비해 관광통역사 자격증과 항공 객실 승무원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기다리기 보다는 끝났을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남들보다 경쟁력을 갖춰 코로나가 끝날 시기에 바로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길 희망한다.

글쓰는 방법의 지식부터 감성까지

2020-2학기 장려상 / 조경학과 이승연

기초 글쓰기 강좌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제 의견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내 의견을 짧고 굵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인가를 따지면서 잦은 첨삭을 하였습니다. 기초 글쓰기 강의를 들으면서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좋은 글이란 내 의견을 드러내어 독자들에게 나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글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독자들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추상적으로 나만 알게 쓴 명언들과 지혜는 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글을 많이 지우지 않습니다. 글을 많이 고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흐름에 맞추어 글의 속도 또한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의 흐름에 맞게 독자들 또한 저에게 공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 글쓰기 강의의 수업방법은 Webex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을 보고 가끔 농담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수님의 감정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말과 얼굴에 드러난 표정으로 “지금 교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할 시간이다”, “지금 재미있는 말을 듣는 시간이다”, “교수님이 지금 조금 피곤하신 것 같다” 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녹화강의보다는 실시간강의가 더 좋았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을 바로 즉시 질문할 수 있고, 소통이 되므로 학생들 자신의 이야기들을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녹화 강의일 경우에는 강의를 뒤로 미루어 제 시간에 못 듣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실시간 강의이므로 출석에 더 신경 쓰게 되고,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므로 제 얼굴을 교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게 되어 더 열심히 듣는 자세로 강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 글쓰기 강의에 제가 참여했던 방법은 교수님의 질문사항이 올라오면 이 질문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지만 답을 정해 놓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은 눈에 보이고, 이 답이 유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알 것 같기 때문에 그 안에 숨은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기초 글쓰기라고 해서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를 던져주시기도 합니다. 마땅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그것이 옳은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수용적인 자세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받았습니다. 그 질문으로 인해 내가 반성해야 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계급의 구조화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로 인해 과거의 나를 반성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까지도, 굳이 계급을 나누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관계임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까지 계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저의 지난날에 제가 했던 행동이 이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잘난 친구 옆에 있고 싶었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고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할 것 같은 친구 옆에는 있고 싶지 않았습다. 이것이 그 친구의 매력과 인성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 친구들 사이의 구조에서 내가 살아 남고 싶었기 때문에, 인기가 얻고 싶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을 듣고, 그 친구와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그 때 내가 너에게 조금 더 관심을 주었다면 너의 학교생활이 달라졌을까’ 하며 그 친구로부터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초 글쓰기 수업이 철학적인 면과 삶의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이 수업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글을 진심으로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멋진 어휘와 함축적인 은유보다는 제 생각을 솔직하고 제 감정을 진실로 드러내는 글이 좋은 글임을 알게 되며, 내 독자들이 나의 글을 읽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내 의견에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된 것 또한 제가 진심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증거의 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수업을 통해 위의 사례처럼 반성하는 계기와 앞으로 좋은 사람과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해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대학의 5대 핵심역량에는 인성, 감성, 지성, 소통, 수행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 글쓰기 수업은 인성 13%, 감성 13%, 지성 26%, 소통 29%, 수행 19%라고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골고루 역량이 나누어져 있을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본 강의계획서에는 몇몇 중요한 부분에 올린 것을 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교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많고, 일의 자리까지 세세하게 나눈 것을 보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구나!’ 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강의를 들은 입장에서 5대 역량을 수업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성부분은 계급의 구조화와 좋은 어른과 끈대의 차이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감성부분에서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글이 아닌 독자와 공감하는 글이라고 배웠습니다. 지성부분에서는 서지사항을 쓰는 법,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배웠습니다. 소통부분에서는 교수님이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질문을 던져 주시면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 함께 그 문제에 고민해보고 채팅창의 자신의 의견을 남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같은 또래의 사람이 경험해보았던 일과 감정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제가 배울 부분을 알게 되고, ‘다들 나와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구나!’ 고 느꼈습니다. 수행부분에서는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는 주간이 있었습니다. 과제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과제를 내는 기간을 잘 보고 과제를 내야하는 약속과 같은 개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각을 하지 않는 친구에게 같이 사업을 할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시간에 늦지 않는 것, 서로의 신뢰와 자신과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 듯 기초 글쓰기 강좌를 들으며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어? 너도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봐

2020-2학기 장려상 /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진영민

내가 추천하는 강의는 ‘의사소통영어’이다. 왜냐하면 나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 영어를 못해서 영어라는 과목을 싫어했는데 대학교에서 의사소통영어 수업을 듣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의사소통영어라는 과목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UNIT12에서 종속절을 배우던 중 교수님께서 ‘좋은 왕 앞에 올 수 없다’라고 설명해줘서 종속절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만약 종속절이 앞으로 오게 된다면 반드시, 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셔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게 되었다. 또한 평소에 use에 대해 헷갈리고 있었는데 UNIT11수업 중에 never에서는 used to를 사용하고 didn't 과거에서는 used to가 아니라 use to를 사용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확실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친구가 영어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분명 번역기를 사용하여 해석했을 텐데 UNIT10에서 교수님께서 must는 100% 틀림없음을 알려주셔서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를 해석한 경우도 있었다. 또 UNIT3에서 다양한 활동이 나오는데 수업을 통해 skydiving이랑 parasailing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고 windsurfing을 해보고 싶다고 느꼈다. 이처럼 의사소통영어는 일상생활, 친구들과 소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추천한다.

또한 의사소통영어는 실시간강의라서 좋은 것 같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실시간으로 나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한 문제라 틀렸는데 교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확실히 그 문제를 알게 넘어 간 적이 있었다. 또한 내 친구 학교는 zoom수업이 없고 lms같이 동영상 업로드 강의만 있는데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질문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또 다른 친구 학교는 우리처럼 zoom수업만 하는데 친구가 zoom수업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학습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대학교 캠퍼스 생활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고 zoom수업을 통해 대학 친구도 사귀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의사소통영어는 실시간으로 바로 피드백도 가능하고 모르는 문제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서 좋은 것 같다. 또 실시간 강의를 통해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대학 동기들을 볼 수 있고 교수님을 볼 수 있어서 좋은 수업인 것 같다. 교수님께서 항상 일찍 링크를 올려주셔서 단 한 번도 수업에 지장이 된 적도 없고 수업이 아침 수업이라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생겨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수업인 것 같다. 교수님께서 항상 열정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도 영어를 대한 태도가 옛 전과 많이 달라졌다.

우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내가 일요일에는 무조건 11시에 자고 월요일에는 아침 8시40분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다. 또 일어나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수업이 끝나면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여 확실히 알고 넘어간다. 또 과제로 수업시간에 말하기 기록을 재고 하

루 30번을 읽고 나온 기록을 재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빠짐없이 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낸 기록이 30초라면 20초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속 반복학습을 통해 영어 말하기 실력이 향상 시키고 있다. 말하기 공부를 하고 바로 원어민 교수님이 내주신 숙제를 한다. 그 숙제를 통해 영어 문법, 말하기, 듣기를 공부하여 틀렸던 문제는 확인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풀어보고 또 풀어보는 반복학습을 하고 있다. 영어를 싫어하던 내가 하루에 꼭 영어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다. 중, 고등학교 때는 학교 수업시간 말고는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대학교 올라와서 의사소통영어 과목을 통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말하기, 문법, 듣기 공부를 하고 있다.

의사소통 영어 과목은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질문을 효과적으로 교수님께 전달하고 외국인 교수님과 수업을 통해 외국인과 능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있다. 또 말하기 과제를 계획을 하고 바로 시간을 재고 과제를 실행을 하고, 영어 리딩 랩 활동을 통해 영어동화책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출을 위해 도전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끈기를 준다. 예를 들어 리딩랩 활동을 위해 영어책을 대출받아 혼자 끝까지 읽어보고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실시간수업을 들어서 지식 습득과정에서 학습내용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교수님이 다양한 예시나 지식을 종합하고 통찰하여 새롭고 다양한 대안들을 도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 교재 16쪽에 그림들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실제 경험담을 얘기해줘서 더욱더 생동감이 있는 수업이 되었다.

이처럼 의사소통영어는 우리대학 5대 핵심역량 중 소통, 지성, 수행이 있다. 소통을 통해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고, 수행을 통해 영어에 대한 호기심과 끈기가 생기고, 지성을 통해 영어의 재미가 생기게 되었다. 이런 핵심역량이 나에게 큰 변화와 도움이 되었다. 의사소통영어는 한국 교수님과 외국인 교수님의 수업으로 이루지고 있어 더욱 좋은 것 같다. 한국 교수님 수업에는 편안하게 질문하고 외국인교수님수업에는 영어를 계속 듣고 혼자 생각함으로써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다. 이 강의는 전공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신입생 친구들도 한 번씩 듣게 되는 과목인데 꼭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어를 싫어하고 못하는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다. 교수님께서 자기 영어 실력에 맞게 수업을 해주셔서 부담 없고 편안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강의 이다.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줘서 영어를 이제야 알게 되고 영어의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값진 수업이라서 추천해주고 싶다.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2020-2학기 장려상 / 공공인재학부 진민지

공무원 시험과 면접 실습은 지성과 소통을 겸비하고 있는 과목이다. 이것은 대학에서도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인 면접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현재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수님과 학생들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대면 수업에서 느꼈던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하는 학생과 교수님은 화면 안에서 보는 서로의 모습이 어색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수업 시간에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서로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인지 지금은 서로 화면 속의 얼굴을 보며 수업하는 것이 적응되고 이제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번 학기 가장 즐거운 수업이다. “1년의 시간 동안 학업을 병행하며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면접은 자신 있으니 필기만 합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수업을 통해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학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기들 또한 다양한 공기업과 공무원을 준비하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 우리에게 면서 필기에 합격하고, 단시간에 면접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만 그런 생각접관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께서 면접은 단시간에 준비한다고 완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실전에서 떨지 않고 면접관에게 자신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하셨다. 난 수업을 듣기 전에 면접은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질문을 하면, 응시자가 그에 대해 답변을 하는 형태로만 진행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면접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과 내가 생각한 면접과는 다른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업은 자기소개서 작성, 기술서 작성,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기, 5분 스피치 그리고 개별면접 이렇게 진행되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론 위주가 아닌 직접 실전처럼 소통하고, 연습하며 성장해가는 학생 맞춤형 수업이었다. 주로 수업은 매 시간마다 주제에 대해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시면,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 와서 발표한 후 피드백을 받는 형식이였다.

먼저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했다. 교수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주셨지만, 막상 주어진 몇 개의 항목을 작성하려니 막막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예시를 보며, 참고해 작성했다. 그 이후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이 과정을 통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 기술서를 작성했다. 기술서는 자기소개서와 달리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주장과 근거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3줄로 요약해서 전

달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고 복잡하게 생각해 주저리주저리 적어서 발표했을 때, 교수님께서 나의 의견은 좋지만 거창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주셔서 기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기술서 작성이 끝나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기관의 정보를 알아 온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나는 선거 직렬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알아갔다.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해 정해진 과목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지만, 막상 내가 원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알아보고, 더 나아가 유튜브에 올라온 선거직 공무원이 선거 기간에 하는 일과 선거기간이 아닐 때 하는 일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루어져 있는 조직과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발표한 후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에 대해 좋았다는 공통 피드백을 받으며, 추후 실제 면접 때 지금 경험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관을 알아본 후 5분 스피치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5분 스피치란 5분의 시간동안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교수님께서 제시해 준 몇 개의 주제 중 나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는가를 선택해 일주일의 시간 동안 국민에게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인지,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 평소 웃음이 많지만, 카메라를 보거나 발표상황이 되면 웃음을 잃고 얼어버렸던 나는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 거울을 보고 웃으며 준비한 원고를 천천히 읽는 연습을 수없이 했다. 비록 발표는 4분 40초로 5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교수님과 같이 수업을 듣는 학우들에게 표정, 내용, 또박또박한 발음 등 칭찬을 받으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실제 면접 현장에서 5분 스피치를 먼저 경험해본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자세와 내용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면접관이 학생이 되고 교수님께서 면접자가 되어 답변하는 상황이었다. 각자 준비해온 2가지 질문 약 10개의 질문을 즉시 면접의 상황을 살려 답변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학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과 면접관 경험만 있다가 면접자가 되어보니 바로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며 공감을 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교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대에 맞추어 수업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정리해보자면, 이 수업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다. 면접학원에서 단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배우고, 배운 대로 면접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실제 면접관의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께서 학생 개개인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며,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다. 위의 과정을 보며, 매주 다른 주제로 준비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 꺼리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수업을 들어보고 싶지만, 다른 학과 전공 수업이어서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꼭 이 수업을 추천해 주고 싶은 이유는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내가 의견을 또박또박 대답할 수 있게 되었고, 표정과 발표 태도가 좋아

지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매년 새로운 수업을 준비해오는 교수님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 “공무원 시험과 면접 실습”이란 이 수업은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도 대학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일 것이라 생각하며, 면접 준비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자신을 보고 싶다면 관심을 가지고 이 수업에 참여해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임상 시뮬레이션 상황을 통한 실무 대처능력

2020-2학기 장려상 / 간호학과 장경민

1학점 2시수 15주 수업으로 4주마다 가상 시나리오 주제를 바꿔가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듈 구성은 1) 사전학습 2) 시뮬레이션 개요 3) 환자개요 4) 의사처방 5) 간호기록 6) PBL 활동계획서 7) PBL 문제해결보고서 8) 서면 Debriefing 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기준은 중간고사 10점, 기말고사 10점, 수행 60점, 과제 10점 출석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수업 때 실습지침서와 실습가운, 머리 망은 꼭 착용하고 핸드폰은 사용하지 않지만 자료를 찾거나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노트북을 가지고 옵니다. 이 수업은 성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중재를 제공합니다. 전문직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요구되는 과학적 간호지식과 핵심간호 수행능력 및 비판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임상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팀 상호작용, 효과적 의사소통능력, 실무 대처능력, 의사결정 능력 및 임상간호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 개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의 핵심은 PBL입니다. learning is based on a patient problem = 문제를 활용해서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첫 챕터 때는 간경화대상자, 두 번째는 폐암 절제술 대상자 간호, 마지막으로 심근경색 대상자 간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조를 구성하여 팀원들끼리 전반적인 환자에 대해 알고 사전학습을 해옵니다. 환자에 대해 이해한 다음 두 번째 날에는 가상 시나리오를 팀원들끼리 짜온걸 연습하며 궁금한 점과 기계다루는 것 등 교수님이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세 번째 날에는 각 조마다 10~20분 타임을 두어 저희끼리 짜둔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촬영합니다. 4주차 때는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발표를 하여 잘한점, 못한점, 깨달은점에 대해 디브리핑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수업은 대면수업입니다. 혈압, 맥박, 호흡이 측정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마네킹을 환자라고 생각하고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사가 된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각 챕터마다 핵심간호술기가 포함되어 있어 기본간호학에서 배웠던 술기 술을 응용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교수님이 의사 또는 환자 역할을 대신하여 응급,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평가합니다.

조원들과 환자 케이스 별로 사전학습을 해오고 전반적인 병의 병태생리부터 어떻게 치료하는지 안 다음 실제로 환자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의사소통도 해보는 연습을 해보고 조원들과 협력하여 핵심간호술기를 청결하게 정확히 하는지 연습하고 평가받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실제로 임상에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이때 했던 수업을 떠올리면서 당황하지 않고 환자에게 처치와 간호를 시행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흉부 배액 줄이 환자와 분리되어 있을 때 검자를 가지고 잠그는 것이 우선인 것을, 그리고 수혈하는 도중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호흡이 불편하면 침상을 올리는 것과 계속해서 환자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의사와의 정확한 의사전달방법, 그리고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맥박과 spo2가 떨어졌을 때 간호사는 여기서 환자에

게 최선을 다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학습해 봄으로써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조원들과의 팀워크가 중요했고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실제로 임상에서처럼 해보니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배재대학교의 5대 핵심역량 중 수행 역량이 강화 되었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사전학습을 하고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환자 문제에 대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고 자료 수집을 하면서 다양한 포털사이트와 전공책을 활용해 정보 활용능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실제로 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기계를 만지고 실행해 보면서 도전적이고 추진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업은 저에게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수업이었습니다. 막학기 수업이라 대충하고 싶었지만 하다보면 책임감이 생기고 임상현장에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후배들도 1년 뒤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걸 느끼게 됨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수업이 없어지지 않고 학교에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약물을 주입할 때 아무 주사기나 쓰면 안 될걸 알았습니다. 약물의 용량이 ICC주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주사기를 사용해야하고 정확히 해야 물품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선생님에게 환자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 할 때 의식의 흐름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ISBAR의 원리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환자의 안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원활한 업무를 위해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된 시뮬레이션 수업이었습니다.